

vol.
301

2022.
April

오늘의 도서관

‘새김’에 깃든 염원

기록으로서 목판 인쇄술의 발전은 당대 지식의 확산과 문화 향유의 근간이 됐다. 이는 훗날 인쇄 문화의 전성기를 꽃피웠는데, 류치호의 <동림선생문집> 목판에는 선대의 살아생전을 기억하려는 후대의 마음이 더해져 애뜻하기까지 하다. 높은 곳에서 나무를 베어 운반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말려내기까지의 기다림. 비로소 목판에 정교히 글자를 새겼을 어떤 이의 정갈함과 그 안의 뛰어난 필력까지. 문화재로서 후대에 남겨진 목판들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목판 인쇄술을 당대에 살던 이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당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다.



‘새김’에 깃든 염원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01**
2022. 04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매체박물관

| 표지 이야기 |

1906년, 류치호(柳致禧)의 <동림선생문집(東林先生文集)> 목판 <동림선생문집(東林先生文集)>은 살아생전 '동림거사'로 불렸던 전주 류씨 가문 '류치호'의 살아생전 시문과 행적을 정리해둔 책이다. 판목에 본문을 새기고, 글자 면에 먹물을 칠해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로 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목판 인쇄술을 바탕으로 고도의 지식 확산을 이뤄냈으며, 이는 문화 향유의 근간이 되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2권 제3호 통권 301호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370104-000026-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윤, 손호림, 송재술, 이정민, 박수영

편집 이정화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06



Contents

늘 서재

- 04** **오늘의 칼럼**
사서직 계속 교육의 성과와 과제
- 06** **자료 보존 이야기**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학 작품 초판본
꽃 피는 춘삼월, 봉인된 시집의 낭만을 찾아서
- 10** **장서 속 인물들**
<정사유락초>의 풍몽룡
관직을 향한 욕망 덕에 남겨진 낙방거사의 수작
- 14** **도서관과 전시**
실감형 체험 공간 '지식의 길' 개관
문학의 향기 따라 거니는 지식의 길

오늘의 도서관 4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블로그** blog.naver.com/todayslibrary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열린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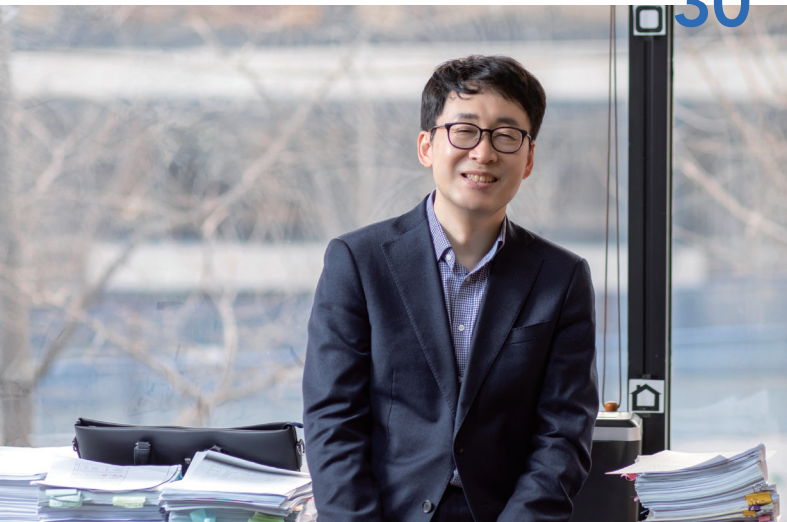
- 18** **나를 키운 도서관**
양다솔 작가와 마포중앙도서관
내일의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어요
- 22** **해외 도서관 랜선 투어**
시민들에게 자긍심의 상징이 되다
일본 공공도서관
- 26** **도서관 트렌드**
도서관, 건축으로 말한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서관 건축 이야기

북 라운지

- 30** **오늘의 만남**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씁니다
변호사 겸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 34** **우리가 사랑한 작가**
추리소설 작가 미스터리 실종 사건의 전말
애거사 크리스티
- 38** **독립서점 산책**
부산 독립서점 '나락서점'
책을 공유하는 가치와 기쁨
- 42** **책 읽어드립니다**
올리비아 랭 <이상한 날씨>
우리가 만들고 우리를 만든 '이상한 날씨'에 대하여
- 46** **꺼내 먹는 책**
에세이 <박완서의 부엌 :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멘보샤
- 48** **책 듣는 시간**
김영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속
챗 베이커 'My Funny Valentine'
죽음을 욕망하는 여자들, 작별 앞에서 선택한
레퀴엠

도서관 소식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웹툰-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책다모아(도서 기증)로 하는 지식 기부



30



38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사서직 계속 교육의 성과와 과제

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품질과 효과성은 직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사회적 요구의 끊임없는 유동성, 기술 변화와 전문 지식의 발전은 사서를 비롯한 정보 전문직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업무 스킬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한다... 서비스의 적절성은 잘 준비되고 계속 학습하는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품질과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직원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이 2016년에 채택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 지침」(IFLA Guidelines for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유능한 인력 확보 여부가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은 어느 분야에서나 진리겠지만, 사회적 요구와 관련 기술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도서관에서 사서의 계속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행 「도서관법」 제6조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도서관장에게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역시 제11조 제2항에서 “대학의 장이 사서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 과정을 설치 운영할 법적 책임을 가진다. 또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사서직 공무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직제 정원 10명으로 구성된 ‘도서관인재개발과’에서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약 4만 명의 계속 교육을 담당한다. 아직 빈틈한 독립적 교육 공간과 전임교수 요원도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33개에 이르는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진단평가에서 국무총리상(2009년), 인사혁신처장상(2018년, 2019년), 대통령상(2020년)을, 공공HRD 콘테스트 교육과정개발 분야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진단평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들어낸 불가사의한 성과”라는 후일담을 들었을 때 관장으로서 자랑스럽기보다는 그렇게도 중요한 사서의 계속 교육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자괴감을 느꼈다.

코로나19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훈련 과정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 교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2005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바쁜 일상을 영위하는 사서들이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사서교육의 혁신은 단순히 온라인 교육과정과 수강생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날로 발전하는 스마트 학습환경과 교육 수요자인 사서들의 높아진 디지털 역량 등 사서교육훈련의 기회 요인과 오랫동안 쌓아온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훈련 역량이라는 강점 요인을 결합한 적극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신기술을 채용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디자인싱킹이나 플립러닝 같은 새로운 교수기법을 채용한 참여형 교육 확대, 디지털 첨단기술 활용 능력이나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확대, 경력 단계별 교육과정 세분화와 리더십 교육 강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 수요의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인프라도 투자도 여전히 부족하다. 사서의 역량교육이 도서관 서비스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서관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 ❶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소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에 의거하여 국·공립도서관 및 사립도서관 등 전국 도서관의 사서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2022년 사서교육훈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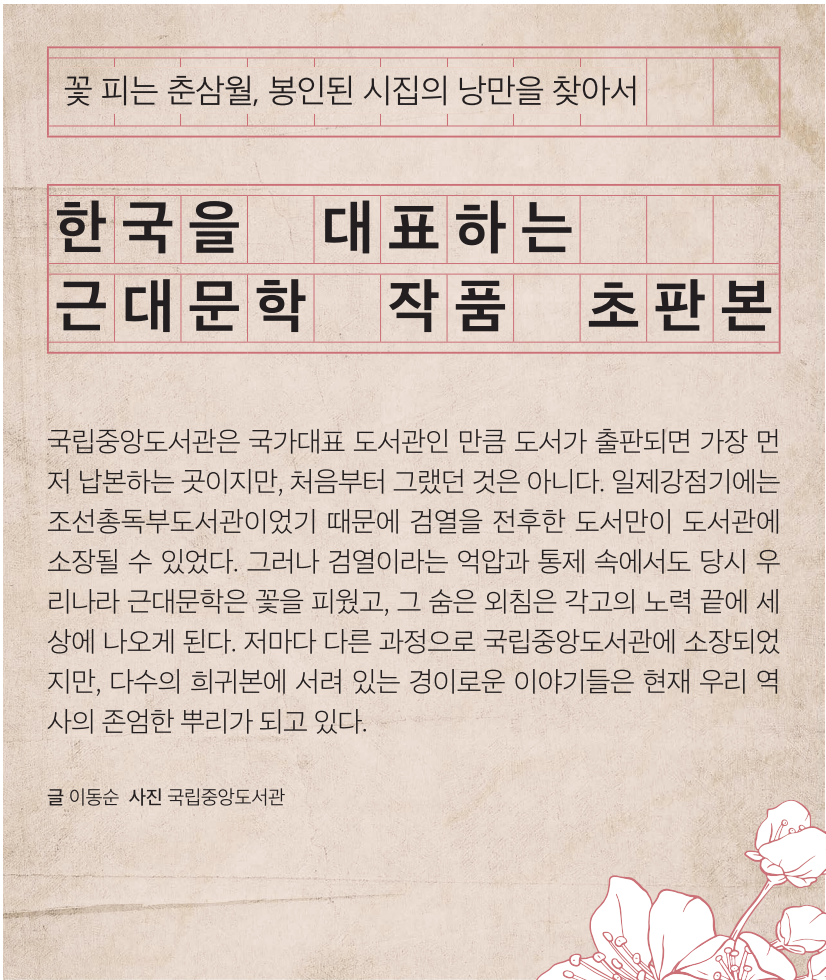
- 교육과정 : 총 107개 과정 156회(집합·이러닝 교육)
- 교육기간 : 2022년 2월~11월(집합 교육 3월부터)
- 교육 대상 : 전국 사서직 공무원 및 각종 도서관 직원 등
- 교육 인원 : 각 과정별 40명 내외
- 교육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등

2022년 사서교육훈련에는 메타버스 시대 핵심역량으로서 도서관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첨단기술(CIBA : Cloud·IoT·BigData·AI)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AR/V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도서관 최신 동향’,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등도 교육합니다. 아울러 신규 과정인 ‘도서관과 디지털 리터러시’, ‘도서관 데이터와 통계 실무’ 등도 새롭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사이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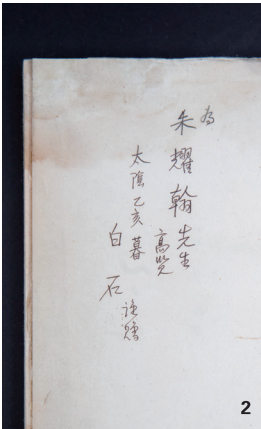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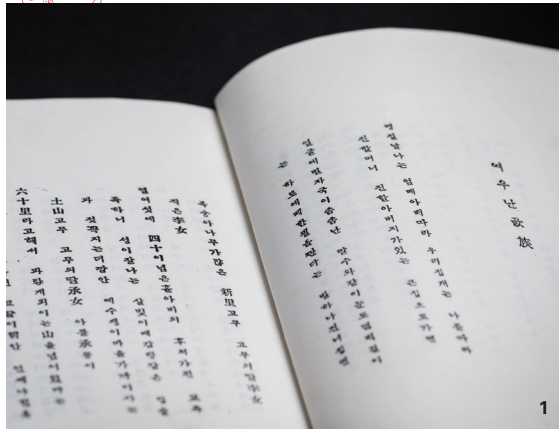




정신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 사상 가장 많은 시집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몇 권 남지 않은 희귀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 눈에여볼 것은 바로 초판본 시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는 백석과 서정주의 시집은 한정판으로 국내에 출판되었다. 한정판이다 보니 당대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시집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때



문에 이들 희귀본 시집들은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은 희귀 시집의 보고로서 정신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단 100부만 찍어낸 백석의 첫 시집

<사슴>의 초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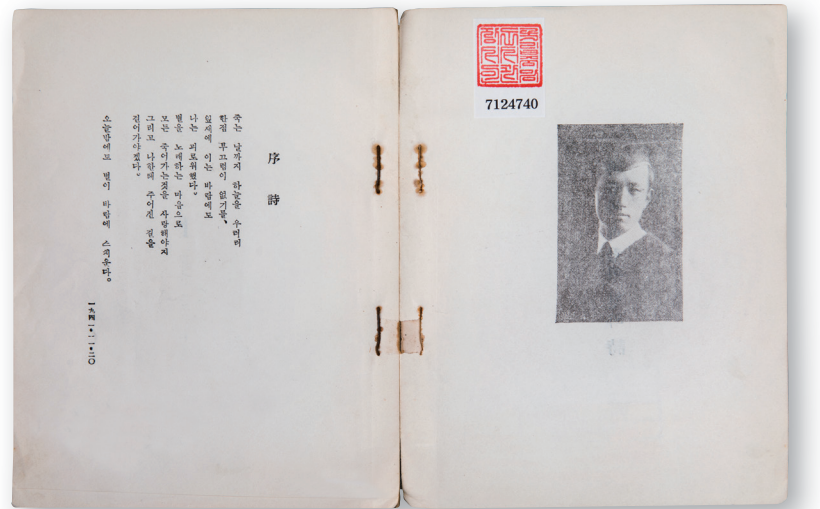
백석의 시집 <사슴>은 1936년 1월 100부 한정으로 선광인쇄주식회사에서 출판됐다. 출판기념회는 태서관에서 열렸는데 안석영, 함대훈, 홍기문, 김규택, 이원조, 이갑섭, 문동표, 김해군, 신현중, 허준, 김기림이 참석했다. 시집 <사슴>에는 24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가격은 2원이었다. 본명이 백기행인 백석은 1930년 ‘그 모와 아들’이라는 소설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적이 있었으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는 잡지 <조광>을 발행하는 일을 했다. 그때 <조선일보>(1935년 8월 30일)에 시 ‘정주성’을 발표했고, 몇 편의 시를 <조광> 등에 더 발표했다. 시인으로 명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력이 길지도 않았던 백석이 시작(詩作) 1년 만에 시집 <사슴>을 자비로 출판한 것이다. 겨우 100부만 찍은 이 희귀본 시집을 읽고 당시 <조선일보> 기자는 “표지와 장정, 종이와 활자, 여백에 이르기까지 주관의 호흡과 맥박과 취미를 강하고 솔

직하게 나타낸 시집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향토적인 것 같지만 모더니티를 품고 있다”(1936년 1월 29일자)고 간파했다. 또한 <사슴>의 세계는 시인의 기억 속에 쭈그리고 있는 동화와 전설의 나라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백석이 보낸 시집을 받은 시인 신석정은 시 ‘수선화’(<조선일보>, 1936년 1월 31일자)로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동아일보> 이하운 기자는 “<사슴>의 백석을 몰라서는 안 된다”(1940년 6월 1일자)고 했을 만큼 당시 시집 <사슴>은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광복 후 남북 분단과 6.25전쟁으로 인해 줄곧 북쪽에 머물렀던 백석이 월북 시인으로 규정됐고 강제로 잊어야 하는 시인이 되었다. 하마터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질 뻔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집 <사슴>은 잊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읽히고 있었고, 덕분에 백석의 유일한 시집인 <사슴>의 초판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두 권이나 소장될 수 있었다. 그중 한 권은 작가 주요한에게 직접 친필로 서명하여 건넨 귀중본으로 백석과 주요한이 당시 친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어렵게 세상에 나온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그의 후배이자 하숙 생활을 함께한 정병욱이 소장한 윤동주의 친필 원고와 윤동주의 벗이었던 강처중이 소장하고 있던 시를 모아 1948년에 발행한 시집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하였던 시인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시 19편을 한데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자필 시집을 3부 엮었다. 그중 1부는 윤동주 자신이 갖고, 정병욱과 연희전문 영문과 교수인 이양하에게 각각 1부씩을 주었다. 정병욱은 학도병으로 징집되자, 윤동주의 자필 시집을 어머니께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의 부탁을 받은 정병욱의 어머니는



3

윤동주의 자필 시집을 보자기에 써서 항아리에 담은 뒤 집의 마룻바닥을 뜯어내어 그 안에 고이 보관했다. 광복을 맞아 정병욱은 무사히 귀환했지만, 윤동주는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중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에 정병욱과 강처중은 그의 시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당시 <경향신문> 주필로 있던 정지용을 찾아가ندا. 얼마 후 정지용은 꼼꼼한 검토 끝에 1947년 2월 13일, ‘쉽게 써어진 시’를 신문에 실는다. 생전에 시집을 내고자 했던 윤동주의 시집이 후배 정병욱과 벗 강처중, 정지용에 의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 윤동주 시인의 10주기를 기념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의 여동생인 윤혜주가 보관해오던 시 원고를 더하여 1955년 2월에 다시 간행되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바로 이 1955년판이다. 안타깝게도 1948년 판은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1955년판에는 정병욱의 후기와 윤동주의 동생인 윤일주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선백의 생애’가 있다는 점이 1948년판과 크게 다르다. 문학계는 윤일주의 기록을 통해서 윤동주가 연희전문 문과 졸업을 기념코자 자신



4

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백석의 시집 <사슴> 초판본에 실린 '여우난굴족'.
2.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석 친필 서명본.
3. 윤동주의 시집에 실린 '서시'와 그의 연희전문학교 졸업 기념사진.
4.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표지(1955년판).



1

이라는 서점을 연 뒤 시집을 출판하기 위하여 만든 출판사다. 서정주의 <화사집>을 포함해 1939년 오장환의 <헌사>와 김광균의 <와사등>까지 모두 세 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오장환이 운영한 남만서고에서 낸 시집 <헌사>와 <와사등> 초판본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서정주의 <화사집>은 여러 판본으로 출판된 보기 드문 시집으로, 한국 문학사에 매우 중요한 작품집이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근대 최초의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억의 번역 시집 <오뇌의 무도>(1921)를 비롯하여 최초의 서사시가 들어 있는 김동환의 <국경의 밤>(1923), 정지용의 <정지용시집>(1936), 이용악의 <낯은집>(1938) 등도 소장되어 있다. 모두 온갖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시집들로, 그들이 노래했던 아름다운 운율은 위대한 역사이자 가치 있는 작품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다. ❸

❶ 이동순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 문학 관련 학술단체인 근대서지학회 소속이며, <광주전남 지역문화와 매체>, <광주문학100년> 등의 저서와 <조운문학전집>, <조중현전집> 등을 엮었다.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서정주의 <화사집>.
2. (왼쪽부터 차례대로) 오장환의 <헌사>, 김억의 <오뇌의 무도>, 김동환의 <국경의 밤>, 정지용의 <정지용 시집> 표지와 이용악의 <낯은집> 내지.

의 시집 77부를 한정판으로 출판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43년 7월 귀향 일자를 알리는 전보를 받고 역에 나갔으나 윤동주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열흘 후에 우편으로 보내온 차표로 찾은 수화물이 전부였다는 사실도 실려 있는 귀중한 자료다.

원초적인 생명력과 관능성으로 독자를 매혹시킨 서정주의 <화사집>

서정주의 시집 <화사집> 역시 백석처럼 100부 한정본으로 1941년 2월 남만서고에서 출판되었다. <화사집>은 모두 저자 기증본으로 발행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1~15번은 저자 기증본, 16~50번은 특제본, 51~90번은 '병제본(일반 보급본)',

91~100번은 '인행자(발행인) 기증본'이었다. 일반 보급본은 따로 발행되었으며 저자 기증본과 보급본은 표지와 판권지, 속지 등이 조금씩 다르다. 저자 기증본은 누런색 능화판 모양의 하드커버 표지에 정지용이 쓴 '궁발거사 화사집'이라는 제호가 있고, 김용준이 그린 면화는 매화와 학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뱀이 사과를 물고 있는 판화와 시 23편, 김상원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6~50번에 해당하는 특제본이 소장되어 있다. 특제본 <화사집>은 견고한 하드커버에 책등 쪽에는 단천을 입혔고, 책등에는 붉은 수(繡)실로 '화사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화사집>을 낸 남만서고는 시인 오장환이 1938년 9월 서울 관훈동에 '남만서방'



2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 자료 보존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한국 근대문학 자료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다. 그중 근대문학 초판본 등의 경우, 형태를 구분하여 양장본 등의 자료는 보존 상자에, 딱지본 같은 얇은 자료는 보존 폴더에 넣어 별도로 비치 보관하고 있다.

1 보존 상자



보존 상자는 중성 판지를 사용하여 만들며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움직임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한다. 주로 귀중본이나 무거운 대형 자료를 보관하는 데 적합하다.

2 보존 폴더



4면 날개가 있는 보존 폴더는 자료의 두께에 따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팜플릿, 소형 책자같이 크기가 작고 얇은 자료를 보관하는 데 적합하다.

<정사유락초>의

풍몽룡

(1574~1646)

관직을 향한 욕망 덕에 남겨진 낙방거사의 수작



<정사유락초>는 점잖은 사람들이 늘 통제하고 감추려 했던 '사랑의 감정'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문학자이자 출판인이며 평생을 높은 관직에 오르겠다는 희망으로 살았던 명나라의 이야기꾼 풍몽룡. 그가 일찍이 관직을 얻는 데에 성공했다면 600년 후 우리는 그의 뛰어난 이야기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수없는 실패를 거듭한 낙방거사였기에 그는 돈벌이 수단으로 글을 썼고, 세상에는 그의 수많은 명작이 남을 수 있었다.

글 김진곤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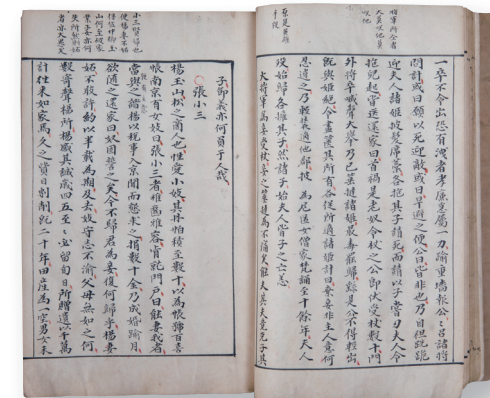
중국에서 발행된 풍몽룡 기념 우표. 훈장이자 글쓰기를 즐겨 했던 그의 생전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멀고도 험한 관직의 길

풍몽룡은 명나라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때 강소성 소주의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다. 형 '몽계'와 아우 '몽웅' 이렇게 3형제의 글재주가 모두 좋아 소주 근동에서 이름을 꽤 날렸다. 이런 그가 과거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수순. 과거급제 하여 관직에 나아가면 이름도 날리고 녹봉을 받아 평생 먹고살 걱정도 없을 터였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험했다. 그의 나이 스물하나에 생원이 되었으나 그건 그저 '주'나 '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최소한 향시에 급제하여 '거인'이라는 자격을 획득해야 했다. 명대를 통틀어 생원 학위 소지자는 늘 50만 명 정도를 헤아렸고 이들 가운데 단지 1%만 향시에 합격하여 거인이 되었다. 당시 중국 전체 인구는 1억5000만 명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관직에 간절했던 것은 청년기에 접어들어 급격히 기울어버린 가세 때문이었다. 한 끼를 먹고 나면 바로 다음 끼니가 걱정이었다고 한다. 누군가가 글을 좀 써달라고 하거나 책을 교정해달라고 하면 다짜고짜 돈을 먼저 줘야 일해준다고 하거나 한술 더 떠서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며 떼를 쓰곤 했다고 한다. 600년 전 중국에서 살던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 호구지책을 마련하며 과거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오직 훈장 노릇 하기와 팔릴 만한 책 출판하기, 이 두 가지 정도 밖에 길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로 방향을 트는 선비도 꽤 되었다고는 하나 그는 과거에 미련을 끝내 거두지 못했다. 훈장 노릇은 금액이 많지 않아도 고정급이라 안정적이고, 책 출판은 들쭉날쭉하고 수입을 종잡을 수 없었지만 잘하면 목돈을 쥐고 이름도 날릴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랑말랑하여 독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책,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책, 수험생 필독서가 잘 팔리는 건 고금의 진리라. 그래서 풍몽룡 역시 이 두 가지에 집중했다.

낙방 덕에 세상에 남겨진 것들

1612년 서른아홉 살 되던 때, 그는 고향 소주를 떠나 호북성 황주로 이주했다. 이후 다시 1617년 마흔네 살, 호북성 마성을 찾아가 1620년 마흔일곱 살 때까지 머물렀다. 이때까지도 그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유력 가문의 자제들에게 과거 과목인 '춘추'를 가르치면서 과거 준비를 할 뿐이었다. 그때 탄생한 책이 바로 일명 춘추 수험서 4종 세트인 <인경지월> (1620), <춘추정지참신>(1623), <춘추형고>(1625), <춘추별본대전>(1625~1630)이다. 5년 뒤인 선일곱 살에는 <사서지월>(1630)을 출간했지만 어차피 수험서였을 뿐이었기에 이 저작들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그래도 어쩌랴, 책을 펴내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을. 하지만 만약 풍몽룡이 현 시대에 존재했다면 공무원 등용문의 스타 강사 또는 교재 편찬인쯤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정사유락초>의 실제 모습.

가볍게 읽어낼 수 있는 만담류나 소화서 역시 마다하지 않았다. 유머 모음집으로 웃음 창고라는 제목의 <소부>(1614), 야담꾼의 만담 모음집이라 할 <고금담개>(1621), 당대의 베스트셀러였으며 후대에 모택동이 애독했다 하여 유명세를 탄 지혜 주머니라는 제목의 <지낭>(1626)을 연이어 출판했다. 그러나 풍몽룡의 출판 활동은 과거 수험서, 만담과 소화서류, 오락 잡기류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중국 고전문학,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설의 신기원을 이룬 단편소설집인 <고금소설>(1620), <경세통언>(1624), <성세항언>(1627)을 연달아 출판하고, 그중 일부 작품은 직접 창작하기도 했다. 30대 초반 젊은 시절, 민요집과 연극 대본을 다수 출판했던 그는 짧은 관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말년엔 예순여덟 살의 나이로 장편 역사소설 <신열국지>(1641)를 편찬하여 중국 역사소설사의 한 획을 긋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단순한 출판인을 넘어 문학가로 변모했다.

풍몽룡은 민간에 전해져 오던 <열국지> 판본을 개작해 <신열국지>를 완성했으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읽히고 있다.



고대 사랑의 역사 <정사유략>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정사유략초>의 모태가 되는 <정사유략>을 풍몽룡이 편찬한 것은 그가 50대 초반까지 과거시험에 낙방을 거듭했던 시기였다. 쉰 살이 될 때까지 그토록 소원하던 관직 하나 얻지 못한 그는 어떤 철학적 생각을 쏟아내고 싶었을까. 그러나 의외로 그가 펴낸 <정사유략>에는 사랑의 역사, 정사의 역사가 담겨 있다. 사랑 이야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 이 책의 '정'은 오욕칠정의 정이요, 감정의 정이라.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늘 통제하고 감추려 했던 정,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분노 같은 것들 가운데 특히 사랑, 즉 애정을 강조하여 중국 고래의 모든 책에서 자료를 모아내고 분류해 책을 꾸렸다. 바보 같은 사랑,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사랑, 정절을 지킨 사랑, 귀신이나 요괴와의 사랑, 기이한 사랑,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랑 등 스무가지가 넘게 유형을 나누고 870여 개의 이야기를 모아서 편찬한 책이 바로 사랑의 역사, <정사유략>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사유략초>.

김진곤

1996년 서울대학교 중문과 대학원에서 <송원평화연구(宋元平話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역사 서사의 유형과 특질에 관심이 많으며, 중국 고전 서사를 우리말로 옮겨 우리 삶에 재미와 자양분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 고전문학의 전통>, <이야기, 小說, Novel>, <유세명언>, <중국백화소설> 등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현재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언제 다 읽겠나 싶어 <정사유략>에서 100개의 이야기를 뽑아 만든 것이 <정사유략초>다. 만든 이는 1838년 운수연주인(雲樹筵主人, 초여름에 구름과 나무가 함께하는 자리의 주인)이라는 필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필명의 소유자가 직접 <정사유략초>를 만들고 서명했는지, 아니면 그저 필사자에 불과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무튼 일본에서도 1878년에 <정사유략>에서 107개의 이야기를 뽑아 <정사초>를 편찬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런 선집을 만드는 유행은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는 모양이다. 앨범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자도 있을 거고, 싱글로 한 곡만 듣는 자도 있을 것이며, 베스트 앨범으로 꾸리거나 유튜브, 멜론 혹은 다른 앱에서 자기 취향의 곡만 따로 모아 듣는 자도 있으리라. 그러다 보면 마침내 원래 앨범은 뒷전이고 편집 앨범이 더욱 강세가 되는 그런 현상마저 나타난다. 어디 음악에서만 그러할까. 책도 그러하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사랑의 역사라는 책도 선집본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 그 선집본이 필사본 형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고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 선집본을 어떤 이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냈고, 그것이 어찌하여 압록강을 건너 혹은 서해를 건너 조선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쩌면 우리 조상이 직접 그 선집본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이 서울 하늘 아래 숨 쉬고 있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기특한가.



영화 <풍몽룡전기>의 포스터. 풍몽룡의 일대기는 중국에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일생 중 겨우 8년 동안의 공직 생활

그는 마침내 선일곱 살이 되던 1630년에 공생이 된다. 한 해가 지나 1631년, 스여덟 살의 나이에 그는 고향인 소주에서 서북쪽으로 400리 떨어진 단도현의 훈도 자리를 얻기도 했다. 현의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미관말직인 훈도 자리를 인생의 첫 관직으로 얻은 것이다. 4년간의 훈도 생활을 마치고 중국 복건성(福建省) 수녕현(壽寧縣)의 부현령으로 승진한다. 그리고 1638년 예순다섯의 나이에 그는 수녕현 부현령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8년이 그의 관직 생활의 전부다. 고향으로 돌아간 풍몽룡은 1646년 숨을 거둘 때까지 8년 동안 명왕조의 몰락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명왕조의 재건을 위하여 스스로 무진 애를 썼고, 그 몸부림을 기록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 1644년 갑신년은 그가 일흔한 살 나던 해이자, 명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해다. 그는 이자성의 군대가 북경을 공격한 일, 숭정황제가 목을 매어 자살한 일, 남명 정부 수립 과정 등을 기록하여 <중홍실록>(1600년대 중반)을 편찬했다. 그리고 1646년 일흔세 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❶

실감형 체험 공간 '지식의 길' 개관 문학의 향기 따라 거니는 지식의 길

글 이혜민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새로운 실감 콘텐츠 체험 공간인 '지식의 길'을 개관했다. 지식의 길은 2021년 개관한 '실감서재'에 이어 도서관 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실감형 체험 공간이다. 이번 개관으로 평범했던 도서관 내 이동 통로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이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는 분위기 속에 국립중앙도서관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 지식의 길1 - 작가의 노트

초현실적인 분위기 속 움직이는 문학작품

항상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 이번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폭 15m, 높이 2.5m의 대형 스크린에서 구현되는 '지식의 길'은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문학작품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학작품은 총 네 가지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황순원의 <소나기>, 윤동주의 <별 헤는 밤>,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문학작품 중 4편이 선정됐으며, 방문자가 전시 공간에 들어선 순간 초현실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각의 문학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학작품의 전시 영상이 마련된 곳은 지식의 길 중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공간인 '작가의 노트'이다. 체험자는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벽면을 가득 채운 원고지와 문학작품 속 글귀를 만나볼 수 있다. 빛바랜 원고지 속에 손글씨로 보이는 작품의 내용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원작의 감동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뒤이어 전환되는 화면에서는 광활히 펼쳐진 작품 속 배경이나 소재가 펼쳐진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경우, 소설의 주요 소재인 메밀꽃이 하얗게 만개한 드넓은 메밀밭이 나타나기도 하고, 황순원의 <소나기>에서는 원작에서 소년과 소녀가 처음 대면한 갈대밭이 영상으로 구현된다. 체험자가 벽면을 터치하면 갈대가 반응하는 등 이용자와 화면 간의 상호 반응을 생생하게 구현해내고 있다.

● 지식의 길2 - 스마트라운지

대형 화면으로 즐기는 취향 저격 도서 추천

작가의 노트와 함께 마련된 '스마트라운지'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최적화된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다. 키오스크에 좋아하는 계절이나 색상, 관심 분야 등을 선택하면 추천 도서와 함께 선택에 따라 대형 화면이 바뀌는 체험이다. 추천 도서는 최근 2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 추천 도서로 선정됐던 140여 권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 도서와 함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 대형 화면이 방문자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1. 도서 추천 키오스크를 터치하면 취향에 따라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다.
2. '작가의 노트'에서 실감 콘텐츠를 체험하는 모습.

● 실감서재 2.0

새로운 콘텐츠로 더욱 실감나게 즐기는 실감서재

지식의 길과 함께 '실감서재'도 콘텐츠를 보강해 새롭게 단장했다. 이른바 '실감서재 2.0'으로,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례 과정을 그린 <춘궁강학도> 등이 디지털 복으로 제작되어 선보인다. 삽화에는 애니메이션, 내레이션이 추가되어 있어 소개하는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여지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구현한 인터랙티브 지도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료들은 모두 실물로는 보기 어려운 고도서이자 고지도로, 뉴미디어 기술 덕분에 일반 이용자들은 번역 내용은 물론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지식의 길'과 '실감서재'의 새로운 콘텐츠는 3월 15일(화)부터 제공되며, '지식의 길' 체험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❶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가의 노트’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1936

- 체험자가 전시 공간에 들어오면 빛바랜 원고지에 손글씨로 작품의 원고가 나타나고 글귀가 완성되면 작품 속 공간으로 전환
- 소설의 주요 소재인 메밀꽃이 하얗게 만개한 드넓은 메밀밭을 영상으로 구현



<소나기> 황순원, 1952

- 원작에서 소년과 소녀가 처음 대면한 갈대밭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고 체험자가 벽면을 터치하면 갈대가 반응하는 장면 연출



<별 헤는 밤> 윤동주, 1948

- 별들이 가득 수놓아진 밤하늘을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영상으로 표현
- 체험자의 동작에 맞춰 별뚝별이 떨어지고 바닥의 빛 웅덩이가 반응하는 효과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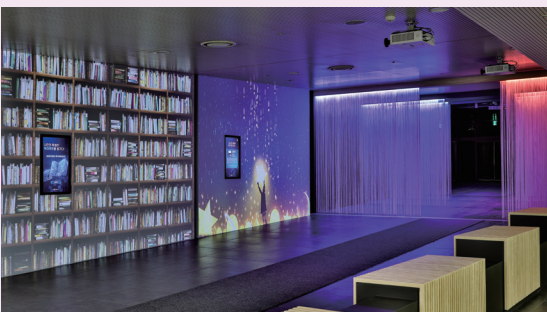


<진달래꽃> 김소월, 1925

- 원작의 가장 중심 소재인 진달래꽃을 대형 스크린과 바닥 면에 가득 채워 시적 공간을 구현
-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꽃잎을 흥미롭게 연출



도서 추천 키오스크 ‘스마트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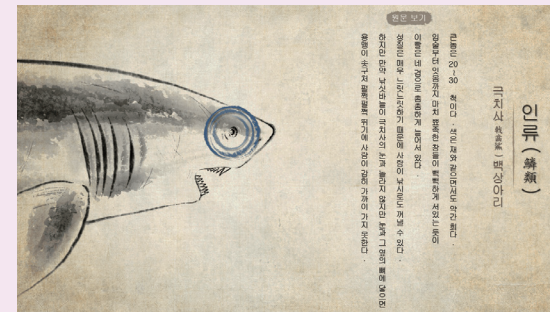


스마트라운지

- 이용자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혈액형, 색상, 계절, 관심 분야, 성향) 던져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
- 최근 2년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140여 권을 대상으로 제공



디지털 북



<자산어보(茲山魚譜)> 정약전 저, 1946(필사)

- 흑산도 연해의 어류를 조사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인 <자산어보> 원문과 해석본 및 관련 정보를 제공
- 삽화에 애니메이션 효과와 음향을 넣어 생동감 있는 콘텐츠로 전달



<춘궁강학도(春宮講學圖)> 간행자 미상, 1800~1834

- 순조의 맏아들인 효명 세자의 입학례를 그린 <춘궁강학도>의 장면을 디지털 북으로 구현
-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장면을 절차에 따라 동적으로 제공하고 내레이션을 더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



인터랙티브 지도



<여지도(輿地圖)> 간행자 미상, 1776 이후

- 조선 사람들이 소망한 우리 고을의 모습을 그린 <여지도>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구현
- 고지도의 지형을 선택하면 현재의 지형으로 변화하는 모습과 지명에 대한 부가정보 제공



<조선풍속도(朝鮮風俗圖)> 최우석 그림, 간행연도 미상

- 조선시대 풍속을 알 수 있는 <조선풍속도>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구현
- 풍속화 속의 인물을 게임 형식으로 구현하여 성공과 실패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흥미롭게 연출



- 이용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누리집 참조).
- 전시 장소** 실감서재 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지식의 길 디지털도서관 지하 1층
(지식의 길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 실감서재는 예약 없이 이용 가능)
- 관람 예약** 누리집(www.nl.go.kr) > 도서관 이용 > 전시 > 지식의 길
- 이용 안내** 공간 내 소지품 반입이 불가하며 만 16세 미만 관람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문의** 02-3456-6169
- 휴관일**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지식의 길
관람 예약하기

양다솔 작가와

마포중앙도서관

내일의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어요



새로 온 동네에 멋진 도서관이 있다면 그 동네를 사랑하는 일이 더는 어렵지 않다. 첫눈에 탄성을 질렀다. 시내 주상복합 뺨치는 크고 번듯한 건물이 길가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딱 봐도 그 주변에서 가장 멋진 건물이었다. 때마침 타오르는 석양이 그곳을 강렬히 비추었고 그것이 또 한 번 반사되어 내 뺨에 홍조를 들였다.

글 양다솔 사진 양다솔, 마포중앙도서관



! 양다솔 !
10년간 쓴 수필을 모은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을 발행하며 작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유료 뉴스레터 <격일간 다솔>을 발행하고 '까불이 글방' 지기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독립 출판물 <간지럼 태우기>,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과 교양 인문서 <절멸>(공저)이 있다.

주변에는 단란한 주택가가 암전히 내려앉아 있다. 앞으로는 시원하게 뻗은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홍제천이 흐른다. 분명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 근처에서 가장 요란뻑적지근한 건물이 도서관이라니. 전학 첫날부터 같은 반에 힘세고 부자인 데다 인자한 친구를 내 편으로 둔 기분이었다. 그 뒤로 집이 갑갑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거실을 드나들 듯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 인류가 있었다

커다란 생각을 하고 싶을 때는 커다란 공간에 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마포중앙도서관(이하 마중도)만 한 곳은 없었다. 옆으로 누워 구르기 시작하면 15분 정도는 너끈히 구를 수 있는 자료실, 나를 위로 쌓으면 10명은 필요할 듯한 천장. 그걸 눈으로 확인하면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다. 여전히 세상에는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곳에 왔다. 듣고, 읽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을 때 이곳에 왔다. 삶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인류'를 목격하고 싶을 때 이곳에 왔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고전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에는 오롯이 나만의 시계만 존재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그 적막은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 쉬이 걷혔다. 이곳엔 느슨하게 함께하면서 자기만의 속도로 활자를 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선가 무얼 하다 나 타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산책하다 보니 도착했네요

집과 도서관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15분이다. 이는 삶의 전반에서 늘 좋은 도서관을 근처에 두고 살았던 '국제양다솔도서관거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신뢰성 있는 결과다. 5분 거리에 있다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언제든 가지 않는다. 장기 연체자의 상당수는 5분 거리 거주자로 이뤄져 있을 거라는 게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10분은 걷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어서 다소 애매하다. 도착한 사람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맞나?', '오늘 뭐 때문에 왔더라?' 하고 생각에 잠겼다가 그대로 팔을 앞으로 뻗고 굴러 떨어지기 십상이다. 15분은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떠나기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가벼운 산책을 겸할 수 있어 딱 좋다.

그런데 삶이 모두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집에서 마중도까지 25분이나 걸리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쉬이 떠나기엔 부담스러운 거리다. 산책을 하러 가는데 마침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일을 낸다'는 정도의 마음을 먹어야 한다. 간다는 행위 자체가 그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왕복 50분으로 중간에 웅달샘이라도 들른다면 1시간이 가뿐히 넘어간다.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한강에서 홍제천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길에 그 책임이 있다. 낮고 길게 졸졸 흐르는 홍제천을 건너 보면 바위 위에 유려하게 서 있는 한 마리 백로를 마주칠 수 있다. 반짝이는 나뭇잎과 노란 햇살 속을 오가는 사람들, 물결을 따라 흐르는 윤슬을 보면 자꾸만 목적지를 잊어버린다. 가끔 귀한 구경도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이마와 손등에 사마귀를 한 마리씩 얹고 유유히 걸어가는 고등학교생을 본 일이 있다... 분명 그 사마귀 중 한 마리와 눈을 마주친 것 같은데 어찌하여 멈춰 서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도중에 허기가 져서 한강 즉석 라면을 한 그릇 때리고서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했다.



1. 마포중앙도서관 외부 전경.
- 2, 3. 2층 어린이실.
4. 3층 자료열람실 I.

자료실의 풍수지리

그렇기에 마중도에 도착한 나는 늘 비장하다. 해야 할 일들과 목을 축일 만한 보이차 약 1.5ℓ, 당이 떨어질 때 먹을 간식, 노트와 노트북으로 3일은 귀가하지 않을 사람처럼 등장한다. 투두리스트는 노트의 끝자락까지 이어진다.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자료실을 돌고 돈다. 나의 목표물은 크고 긴 창문으로 채워진 구석 창가 자리다. 창밖으로는 도서관의 넓은 뒷마당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그 가운데에는 책을 크게 확대해서 쌓아놓은 형상의 야심차고 기이한 조형물이 서 있고 바로 옆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도서관의 뒤편에는 성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이 뒷집을 지고 있다. 산과 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로 향하는 언덕길이 아찔하게 질러 있다. 지그재그로 이어진 나무 데크 계단, 소담한 중학교도 올려다보인다. 뛰어노는 아이들, 언덕을 오르는 주민들, 데크를 오르내리는 개와 사람들을 보면 지루함이 없다. 일단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날은 운수가 대통한 것이

다. 잽싸게 앉아 짐을 풀고 가져온 물건들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한다. 그리고 곧바로 엎어져서 잠을 한숨 잔다.

우선 꿈에서 읽을게요

도서관에서의 잠은 달다. 겨울철의 스트로베리 쇼트 케이크와 견줄 만하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집중력을 이어받아 나도 잠에 집중할 수 있다. 적절한 수면은 정신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후에 이어질 몰두의 시간에 묘약으로 작용한다. <차리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율리시스>를 얼굴에 덮은 채 잠이 들면 누구도 얼씬하지 못할 것이며 운이 좋으면 글자가 스며들어 꿈이 될 수도 있다. 개운하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책장 사이를 거닌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듯이 손가락 끝으로 책등을 쓸어내린다. 내 상체만큼 크고 무거운 책들을 꺼내어 무작정 바닥에 앉아 펼친다. 마중도의 매력 포인트인 독립 출판물 코너도 괜히 서성여본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백과사전과 언제 출간된지도 모르는 고서, 어릴 때부터 닳도록 들어온 고전, 죽기 전에 꼭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작가들을 찾아가 쓰다듬어 본다.

오늘은 오늘의 이야기가 태어나고

끝없이 이어지는 책들 사이에서 인간의 욕구를 실감한다. 왜 인간은 말하고자 할까. 왜 기록하고자 할까. 왜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반복하고자 할까. 그곳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도 다 읽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내 일로부터 달려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되었다. 어제로부터 오늘로 흘러오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그것을 마주 보는 것이 나의 직업이기도 했다. 그쯤 되면 배가 뺑뺑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상념과 불일은 신속히 해결해야 하기에 자료실 옆 화장실로 향했다. 칸막이에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



1. 자료열람실에서 책을 찾고 있는 양다솔 작가.
2. 3층 자료열람실 I.
3.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책 표지.
4. 양다솔 작가는 평소 마포중앙도서관을 방문해 독서 시간을 갖는다.



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클래식한 경구가 적혀 있다. 문제는 그 옆에 네임펜으로 작게 적힌 뽀뽀뽀뽀한 글씨다.

‘학생 인권 유린하는 Y대 의대
정말순(가명)을 파면하라’

마중도에는 화장실에도 이야기가 있다. 작자와 연도 모두 미상이다. 대상 독자는 종합자료실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 변기에 앉은 이다(그리고 방금 이 글을 읽은 여러분도 포함되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모두 잃고 도서관 화장실 문밖에서 입을 댄 이 문장의 주인은 누구일까. 정말순 본인일 확률을 아주 무시할 수 없다. 왜 정말순 본인에게 가서 말할 수 없었는지, 적어도 Y대 의대 화장실에 써놓을 수는 없었는지 그 사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행동을 단행했는지, 일을 치르는 동안에 작성한 것인지, 용의주도하게 이 칸을 골라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자리를 뺐는지, 후에는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학생회장 정말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어떤 연유로 파면당해 마땅한지. 인권 유린, Y대 의대 그리고 정말순이 애초에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내 머릿속을 빈틈없이 휘감아버리고 있었다. 물음표가 끝없이 솟아났다.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❸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 문화 체험 등의 시설을 갖춘 청소년교육센터가 포함된 국내 최초의 미래형 복합 기능 도서관이다. 고품질 정보 문화 제공, 청소년의 꿈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과제로 삼아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라도 편안한 휴식과 함께 이웃과의 즐거운 소통과 정보를 나누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성산동)
- ☎ 전화 : 02-3153-5800
- 🕒 운영 시간 : 자료열람실 I, II/멀티미디어실
(화~금) 오전 9시 30분~오후 8시
(토~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어린이/유아자료실
(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 휴관일 :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시민들에게 자գ심의 상징이 되다

일본 공공도서관

글 박영애 사진 박영애, 위키피디아

인구 40만 남짓한 일본 소도시에 건축 분야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에 의해 공공도서관이 탄생했다. 현재 도서관 건축을 새롭게 공부하는 사서인 나로서는 매우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최고의 건축가이자 세계적인 건축가로 손꼽히는 ‘이토 토요(伊東豊雄)’가 만든 일본 공공도서관을 소개한다.

GIFU MEDIA COSMOS

1.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2층 열람실.
2.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외부 전경.

| 박영애 |

26년 차 공공도서관 사서(사무관). 현재 의정부정보도서관에서 근무 중이다. 28개 도시, 70개 해외 도서관을 여행하면서 ‘도서관의 가치는 공간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축과 도서관을 이어주는 도서관 공간 전문가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0	1
Gifu Media Cosmos	

모두의 숲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이토 토요의 걸작 ‘민나 노모리-기후 미디어 코스모스(みんなの森ぎふメディアコスモス, 이하 미디어 코스모스)’는 인구 40만의 소도시인 기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미디어 코스모스’는 ‘지식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시립중앙도서관과 ‘교류의 거점’으로 시민활동교류센터와 다문화교류플라자, 그리고 ‘문화의 거점’ 역할을 위한 다양한 공간의 전시 홀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이다.

1층에는 시민교류센터, 다문화교류플라자, 오피스 외에 이 건축물의 핵심 정체성은 도서관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면이 유리로 된, 미술관의 오픈 수장고와 같은 오픈 서고가 1층 공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서고는 지하, 어린이자료실은 1층에 배치하는 게 마치 정답처럼 설계되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공간 구성이다. 1층 주출입구 우측에 위치한 오픈형 전시 갤러리는 외부 공간과 상시 연계될 수 있도록 바깥쪽 부분을 폴딩도어로 마감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높였다.

지식의 거점 역할을 하는 도서관 2층은 11개의 테마로 버섯 모양의 글로브가 공간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글로브로 구분된 각각의 모든 공간은 칸막이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별도의 칸막이 없이 모두 오픈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한쪽 공간에 필요에 따라 유리문을 달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다목적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2층 도서관 공간에서 특별히 밀폐된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이지만 이 공간 또한 내부가 보이도록 문이 유리로 마감되어 있다.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6개의 좌석도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한 공간 구성으로 읽힌다.

‘미디어 코스모스’는 넓은 면적에 도시가 모여 있는 듯한 콘셉트로 공간이 디자인 되어 있다. 이 모든 공간은 한 번에 인지될 수 있도록 공간의 개방성이 매우 우수하며, 오픈 플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랜드스케이프 또한 매우 돋보인다. 국내 공공도서관은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폐쇄형 공간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하는 도서관은 개방형 공간인 오픈 플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벽이 없는 오픈 플랜에서는 공간 디자인의 섬세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디어 코스모스’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2층 공간은 그 경관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콘크리트 소재의 서가이다. ‘센다이 미디어테크’ 이후 이토 토요는 일본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서관 공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구인 서가가 지진에 의해 쓰러졌을 때 사람이 다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 방안이었다고 한다. ‘미디어 코스모스’는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공간 디자인 및 가구 설계에도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토요의 세심함이 담겨 있다. 일본 공공도서관이 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해 탄생될 수 있었다는 것은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서가 아닐까?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1. 사면이 유리로 된 미술관 오픈 수장과 같은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1층 오픈 서고.
2. 센다이 미디어테크 외부 전경. 이토 토요는 이 건축물로 2013년 건축 분야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다.
3. 공간의 투명성을 더해주는 센다이 미디어테크 2층 신문 잡지 서가.
4. 센다이 미디어테크 1층 오픈 스퀘어는 개방형 공간으로 평소 문화 행사가 많이 개최된다.

0	2
Sendai Mediatheque	

대지진과 쓰나미의 상처를 품어낸 센다이 미디어테크

‘센다이 미디어테크(이하 미디어테크)’는 일본 최고의 건축가 이토 토요의 대표작이다. 그는 공모전에서 200명이 넘는 건축가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당선되었고, 이 작품을 통해 2013년 건축 분야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센다이시의 랜드마크 ‘미디어테크’는 130억 엔이 투입된 공공 건축물로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이 되었으며, 일본을 넘어 세계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미디어테크’가 위치한 센다이는 인구 109만 명의 일본 동북부 지방 미야기현의 중심 도시이다. ‘미디어테크’가 세계적인 건축물로 꼽히며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과 사상 최대의 쓰나미가 센다이를 덮쳤지만 완벽한 설계 덕분에 온전하게 살



아남았기 때문이다.

‘미디어테크’는 센다이역에서 택시로 5분 정도 걸리며, 도쿄역에서 센다이역까지는 신칸센을 이용할 경우 2시간여 정도 걸린다. 도쿄와 오사카 공공도서관을 먼저 경험했기에 ‘미디어테크’의 명성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디어테크’를 만나는 순간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축물에 압도당했다. 유리로 된 건물 외관은 공공 건축물로서 공공성의 가치를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표현하고자 했음이 느껴졌다. 건축물 외관의 투명성과 개방성은 내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개방된 공간들 또한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사면이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13개의 강철 튜브 기둥이 각 층을 관통하며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대지진과 쓰나미에도 살아남게 해준 ‘미디어테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진 에너지 흡수 기구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미술과 영상, 문화 활동의 거점인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합 공공시설인 ‘미디어테크’. 1층으로 들어서면 오픈 스퀘어, 뮤지엄 숍, 카페, 인포메이션 등의 공간을 만나게 되며 실내 광장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토 토요는 센다이를 상징하는 느티나무 가로수길인 조젠지 거리와 연속될 수 있도록

1층의 플라자 공간을 연출했다고 한다. 오픈 스퀘어는 1층 입구에서 직선거리로 연결되는 개방형 공간으로 영화 상영, 전시, 강연, 연주회 등의 문화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먼저 매우 심플한 디자인의 직선 천장 조명이 임팩트 있게 눈길을 끈다. 공간 내부에는 건물 외관과 같은 유리 소재의 기둥과 꽤 많은 신문·잡지 서가가 공간의 투명성을 더해준다. 이곳은 다양한 미디어, 신문·잡지 등의 자료가 있는 영상·음향 라이브러리이며, 아동용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특히 눈과 귀가 불편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보 열람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다. 3~4층은 수직 오픈 플랜의 복층 구조로 3층에는 일반 자료가 배가된 7단 서가가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4층에는 참고 자료와 향토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5층 ‘갤러리 3300’은 층고 3.3미터인 고정 벽면으로 구분된 전시 공간이며 단체나 개인의 전시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6층 ‘갤러리 4200’은 층고 4.2미터로 가벽 66장을 활용한 가변형 공간으로 지역의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사용된다. 7층은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와 회의실, 녹음실, 프로젝트를, 스튜디오 극장이 있다. 극장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벽이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자율성을 기본으로 공간 이용을 사용자들에게 맡겨



놓았다. 7층에서는 특별한 공간도 만날 수 있는데 다른 아닌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하고 기록해가는 ‘지진재해 기록-시민협동 아카이브’를 위한 ‘center for remembering 3.11’이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아픔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오늘의 세대가 열심히 기록해가는 이 공간을 마주하면서 사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❶

일본 도서관 정보

01.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Gifu Media Cosmos)

-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마지막 주 화요일 휴무)
- 📍 40-5 Tsukasamachi, Gifu, 500-8076, Japan

02. 센다이 미디어테크 (Sendai Mediatheque)

- 🕒 월~일요일 오전 9시~오후 10시 (마지막 주 목요일 휴무)
- 📍 2-1 Kasugamachi, Aoba Ward, Sendai, Miyagi 980-0821, Japan



도서관, 건축으로 말하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서관 건축 이야기

글 류민정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동시에 사람을 품는 곳이다. 한 도시를 대표하기도 하고, 마을 혹은 공동체의 문화를 드러내기도 하는 도서관. 때문에 도서관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도서관만의 특별한 건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예술성은 물론 빛의 활용이나 이용자의 편안함, 기능성까지 고려해 완성되는 도서관은 저마다 자연과 사람, 책을 이어주기 위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SPACE



| 류민정 |

그림책 스토리텔링 교사이자 자유기고가이다. 주로 기업 사보와 각종 웹진에 인터뷰나 취재 원고를 쓴다. 아이들과 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며, 취재로 만난 사람과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느낀다.

호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
Biblioteca Vasconcelos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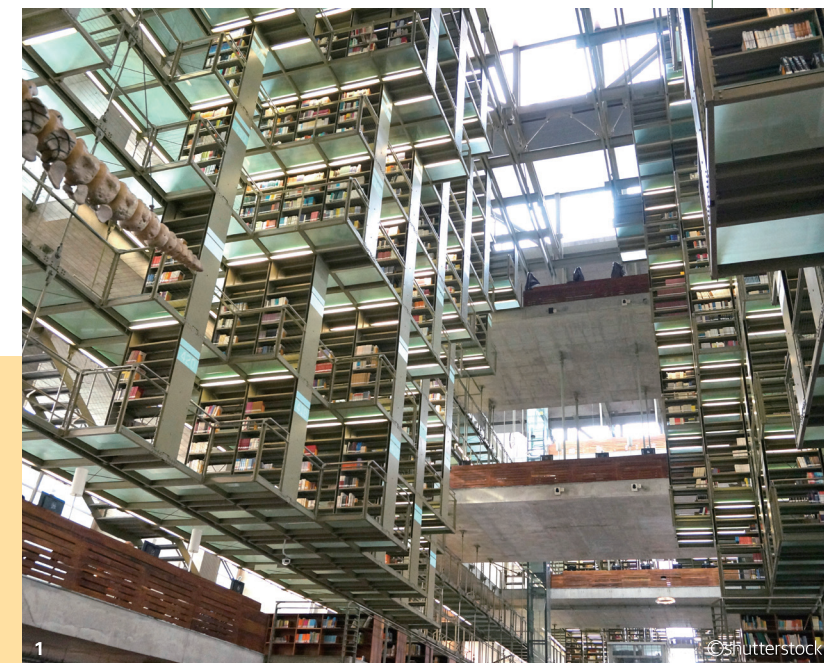


열람실의 개념 전환 -

색다른 개방성으로 읽는 이를 향한 배려 구현

2006년 문을 연 호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공중 부양 도서관'이라고도 불린다. 군사정권에 맞서며 멕시코 교육 혁명의 상징으로 꼽히는 인물 호세 바스콘셀로스 칼데론(José Vasconcelos Calderón)에서 이름을 따온 만큼 설계에서부터 파격적이고 새롭다. 멕시코 건축가 알베르토 칼라치(Alberto Kalach)는 바닥에 서가를 두는 일반적인 도서관과 달리 아주 '비합리적으로' 도서관을 구상했다. 서가를 지붕에 매달아 버린 것이다. 덕분에 창가 주변에서는 누구라도 쏘아지는 햇살 아래 책을 읽을 수 있다. 일반적인 도서관의 서가 위치와 완전히 다른 개념의 도서관인 것이다. 창가 자리를 사람에게 내어준 대신 철재로 된 서가는 건물 중심에 위치해 있다. 책은 책대로, 책을 읽는 사람은 사람대로 제자리를 찾은 듯하다. 알베르토 칼라치는 자신이 지은 도서관을 "책을 실은 방주"라고 묘사했다. 하나의 설치미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곳은 철재 서가의 위압감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가지런히 정돈된 체계적 구조 덕분에 금세 차분한 마음으로 공간을 받아들이게 된다. 서가 간에 벽이 없어 어디로든 열려 있는 듯 보이고, 허공에 떠 있는 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자의 공간이므로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한 건축가의 배려를 느낄 수 있다.

1. 책들이 공중에 매달린 것 같은 독특한 구조의 도서관 내부.
2. 외부에서 바라본 호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의 전경.



비푸리 도서관 Viipuri Library



in 러시아,
비푸리

조도의 활용 - 자연광을 활용한 인본주의 건축

비푸리 도서관은 북유럽의 높은 위도로 인한 빛 차이를 건축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책과 사람을 가장 가깝게 연결시킨 도서관이다. 핀란드 건축가 알바 알토의 작품으로, 현재는 러시아에 위치해 있다. 1927~1935년까지 총 9년의 세월을 거쳐 지어진 비푸리 도서관은 직사광선은 가능한 피하되 자연광을 기능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원형 모양의 자연 상부 조명에 의해 흰색 외벽의 실내가 밝게 비추며 그 결과 빛이 최대한 분산되어 책을 볼 때 사람들의 눈 피로를 감소시킨다. 이는 건축가 알바 알토가 스카이라이트 대신 인공광을 설치했을 때와 천장이 아닌 벽의 개구부를 통해 빛이 유입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고안해낸 것으로, 자연광의 효율적인 시스템화가 도입된 훌륭한 건축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도서관의 건축적 요소 중 빛의 밝기, 즉 조도는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최근까지 도서관 건물들은 계속해서 넓은 창을 내고, 주간의 조도는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모두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도서관을 찾는 누구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1

©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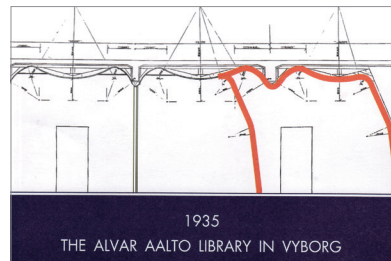


2 ©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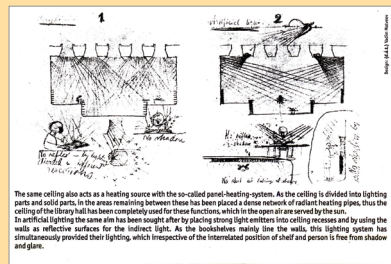


3 ©shutterstock

1. 자연 조명이 고르게 반사되도록 내벽은 흰색으로 칠해졌다.
2. 원형 랜턴의 자연 상부 조명이 도서관 내부를 고르게 밝히고 있다.
3. 정원에서 바라본 비푸리 도서관 외부 전경.
4. 건축가 알바 알토가 도서관 설계 당시 빛의 조도를 계산한 기록물.



1935
THE ALVAR AALTO LIBRARY IN VYBORG



©<Alvar Aalto Viipuri Library>, 1935

4



5

출처 : 다독다독 2호점



6

출처 : 다독다독 2호점

5. 따뜻한 나무 자재와 하얀 책장이 어우러진 개방형 독서 공간.
6. 강동구 고분다리시장 안에 개관한 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 2호점. 상인들이나 시민들 누구라도 자유롭게 시장길을 오가며 도서관에 들 수 있다.

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 多讀茶館



in 한국,
서울

접근성의 확장 -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

요즘 도서관은 책이 필요한 사람만 가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고도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추진 중인 '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이 있다. 벌써 5호점까지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강동구의 '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은 이름처럼 책과 카페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신 개념 도서관이다. 특히 최근 강동구 고분다리시장 내에 개관한 다독다독 2호점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낯은 점포를 도서관으로 만들어 최적의 공간 혁신을 실현했다. 하얀 책장과 나무 자재가 어우러진 이곳은 평소 책을 접하기 어려운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장길을 오가며 들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준다. 다독다독 2호점은 만화책부터 인문학까지 약 2000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400여 권의 그림책과 교과 필독 도서, 팝업책까지 비치되어 누구나 와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서가에 매립된 은은한 조명은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동글동글 도넛 모양을 닮은 조명은 아이들의 발길까지 사로잡는다. 일을 하거나 장을 보다가, 혹은 산책 중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다독다독은 도서관이 누구나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는 곳이 아닌 소통과 공감의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❶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씁니다

변호사 겸 추리소설 작가

도 진 기 *Do-Jingi*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이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판사로 20년을 일했고, 재직 중 소설을 쓰기 시작해 15권 정도의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주로 추리 소설을 썼지만, 법정소설, 법률교양서 등도 썼고, 현재는 네이버에 웹소설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

현직 부장판사의 신분으로 40대쯤 뒤늦게 등단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소설 작법은 어떻게 터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설 작법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작법은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이 한문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동몽선습>부터 <논어>, <대학> 같은 걸 공부하면서 자연스레 문리를 터득했듯이 말이죠. 소설의 작법이나 형식 문제보다는 이야기에 충실하려 더 애를 썼습니다. 작가들이 몰두하는 것과 독자들이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독자로서 훨씬 오래 살아왔기에 독자 편이었고, 독자들이 원하는, 독자에게 친절한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3.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였는지요. 원래 법조인이 꿈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은 본디 인간에게 한 개의 재능쯤은 공정하게 준다고 했던가. 그러나 변호사이자 작가로서 활동 중인 도진기를 보면 한 번쯤 신의 공정함을 의심하게 된다. 판사로서 20년간 신의 영역과도 같은 죄의 유무를 가리다가 어째서 추리소설 작가까지 되었을까. 그의 이력을 바탕으로 거창한 사명감이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지 추측한다면 오산이다. 작가로서 도진기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천생 이야기꾼일 뿐이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공상을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보통 학생이었습니다. 소설,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이 작가 생활의 양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게 법조인은 괴상한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서는 꼼짝하게 고리타분한 직업이었고, 제가 그걸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법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까지 특정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쯤 주변에서는 법대에 가면 어떤 직업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조언해주셔서 법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4.

“판사라는 직업은 내가 쓰는 추리소설과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당하신 사건이나 인물의 이름조차 겹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현직 변호사라는 직업이 작가 활동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미시적으로는 실이고, 거시적으로는 득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사고 방식과 글쓰기는 창작자의 그것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법률가는 지금껏 해오던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고, 틀에 박힌 문장이 잘 쓴 글입니다. 반면에 창작자는 지금껏 없었던 걸 해야 하고, 틀에 박힌 글을 피해야 하죠. 그럼에도 변호사가 되어 법과 법정을 바라보는 경험은 큰 틀에서 창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가의 진정한 고민은 문장의 기술보다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쓸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 도진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추리소설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되었고, 2010년 단편소설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2014년 <유다의 별>로 한국추리문학대상을 받았다.

5.

작가님의 작품 중에 ‘고진’이라는 변호사 캐릭터와 ‘김진구’라는 탐정 캐릭터가 여러 작품에 걸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캐릭터 구상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쯤 되는 캐릭터는 작가의 내면에서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감성이든 사고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과 김진구는 저를 그대로 닮은 인물은 아니고, 제 내면의 한 구석에 있는 것들을 꺼내 만든 인물입니다. 두 인물 모두 정통파 인생을 사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사고방식도 그렇고 무리에서 벗어난 늑대 같은 인생을 사는 인물들입니다. 저는 비록 겉으로는 그런 인생을 과감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동경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들을 저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아는 친구처럼 여겨집니다.

6.

다작을 하고 계십니다. 추리소설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것이 소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감을 특정 매체에 한정한다든가 영감을 얻으려 의도적으로 무엇을 접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소재는 실제 사건의 뉴스나 이야기 같은 것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 책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스위스 밴드 가타드(Gotthard)의 ‘One life, one soul’을 듣다가 이런 감성을 글로 써보고 싶어서 시작했고, <합리적 의심>은 실제 사건의 판결에 분노하다가 쓰게 되었습니다.

7.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종종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언젠가 눈 감을 때, ‘왜 더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하기보다는 ‘왜 더 재밌게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해보려 합니다. 애당초 그런 도전에 부정적인 태도였다면 판사 시절에 소설을 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찾아보니 판사가 추리소설을 출간한 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예가 없었습니다. 지인들은 농담 삼아 ‘동북아 최초의 판사 출신 작가’라고 하는데, 그런 엉뚱한(?) 일을 겁없이 벌였기에 지금의 제가 저인 것 같습니다.

8.

변호사와 작가를 겸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두 직업을 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 안에서 시키는 대로 살고 있



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두 직업을 넘나들면서 저만이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걸 써서 세상에 내놓는 일이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가지 일을 같이하다 보니 의외로 큰 시너지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법률가로서 어떤 판결을 하거나 또는 변론을 만들어갈 때 창작자로서의 상상력이 라든지 폭넓은 감성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 훨씬 더 좋은 변론이 나올 수 있어요. 창작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법률가로서의 어떤 이성적 경험이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일에도 작가의 상상력이나 다양한 관점들이 도움이 되고, 작가로서도 법률가의 경험이나 지식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9.

둘 중 한 가지를 천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게 변호사는 생계고, 글쓰기는 삶

의 의미입니다. 상반되면서도 중요한 가치여서 도저히 한 가지를 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 직업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는지’로 묻는다면 절대적으로 변호사 업무 쪽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요. 저는 초등학교 때 무술 영화를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무술 영화 배우가 되어보고도 싶습니다.

10.

법조인으로서 판결문을 쓰는 등 글쓰기는 작가님과 늘 함께였을 것 같습니다. 소설 쓰기와 법문 쓰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법률가와 작가로 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 안에서의 어떤 방어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판결문을 쉽게 써달라고 하시는데 법률가들은 그럼에도 법 개념이 정확해야 하므로 끊임없이 엄밀한 법 개념에 집착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설의 경우, 독자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는데 작가들은 자기만의 글쓰기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논리가 소설이든 법률가로서 판결문이든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것 외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결문의 글쓰기와 소설가의 글쓰기는 완전히 정반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늘 해오던 대로 써야 하고, 소설은 지금껏 없었던 글쓰기를 해야 하기에 대체로 전혀 다른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11.

전국의 도서관에 작가님의 소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처음 보셨

을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요? 그리고 15권의 책들 중 애착이 가는 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 책이 도서관에 비치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가로 계속 글을 쓰게 되는 거의 유일한 동력입니다. 읽어주는 이가 없다면 쓸 이유도 없겠죠. 너무나 큰 행운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애착이 가는 책은 <유다의 별>과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입니다. 작가로서의 그래프 곡선이 있다면 이 작품들은 첫 데뷔 이후 작가로서 열정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출판한 작품들이에요. 초보 소설가로서 서툴렀던 점들도 많이 개선된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

끝으로, 언제까지 글을 쓰실 생각이신지요?

작년에 어느 분이 “당신이 이렇게 오래 쓸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어떤 깨달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 왜 글을 쓰냐”라고 물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창작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족속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글을 써서 글에 투여한 시간만큼 큰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10년 이상 해오고, 열다섯 번씩 책을 냈는가 생각해보면, 제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떠오르는데 안 쓰고는 못 배기겠는 거죠. 결국 근원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력과 제 ‘눈’이 허락한다면 장르를 넓혀 SF와 추리를 결합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



1. 도진기 변호사는 현직 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책을 펴내고 있다.
2. 도진기 변호사가 펴낸 책의 일부. (밑에서부터)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악마의 증명>, <판결의 재구성>, <라 트라비아타의 초상> 해외 출판본,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라 트라비아타의 초상>.
3. 그의 사무실에는 사건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도진기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리소설 작가 미스터리 실종 사건의 전말

애거사 크리스티(1890~1976)

1926년 12월 3일, 영국 버크셔의 서닝데일. 이날 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수수께끼가 밝혀지지 않는 기묘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여성이 가족에게 잠깐 드라이브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서 홀로 밖으로 나간다. 곧이어 자동차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와 함께 운전자도 모습을 감췄다. 그게 끝이었다.

글 윤성근 사진 위키피디아, 출판사



코넬 도일과 도로시 L. 세이어즈의 추리

얼마 뒤, 자동차는 영국 서리(Surrey)의 한 광산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거기 타고 있던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에 비상이 걸렸고 곧이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라진 운전자가 다름 아닌 추리소설 작가 애거사 크리스티였기 때문이다.

추리소설 작가의 실종 사건은 사람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신문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애거사 크리스티의 이름과 사진이 삽시간에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정보력이 뛰어난 기자들이 곳곳을 들쭉거리고 다녔지만, 실종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1000명이 넘는 경찰 인력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1만5000여 명이 동원



1. 애거사 크리스티의 젊은 시절 모습.
2. 1922년 프로모션 일환의 '대영제국 탐험 투어' 중.
3. 애거사 크리스티 작품들.

됐다. 비행선까지 띄워서 수색했지만, 일주일 이상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설록 홈스를 창조한 코넬 도일과 귀족 탐정 피터 워밍로 인기를 얻은 추리작가 도로시 L. 세이어즈도 실종된 동료 작가를 찾는 일에 힘을 보탰다. 코넬 도일은 크리스티가 기차를 이용해서 어디론가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리했다. 그러나 오컬트에 심취해 있던 그는 추리를 더 이어가는 대신 그녀가 쓰던 장갑을 영매에게 가지고 가서 조언을 구했다. 여성 작가로 크리스티와 경쟁 관계에 있던 도로시 L. 세이어즈는 자동차가 발견된 광산 주변을 자세히 조사했으나 역시 뚜렷한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명탐정 푸아로와 할머니 탐정 미스 마플

누구에게나 그렇듯 첫 번째 책을 출판하기 위한 여정은 험난했다. 크리스티는 벨기에인 명탐정 '푸아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설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을 1916년에 완성했으나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끝에 1920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이후 푸아로는 <나일강의 죽음>,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포함 33편의 장편소설, 50편 이상의 단편소설에서 활약하며 설록 홈스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린다.

푸아로는 살집이 있는 작은 키에 달걀형 얼굴, 그리고 완벽하게 대칭인 콧수염을 뿔뿔하게 손질한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탁월한 심리학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내막을 풀어내는 재주를 가졌다. 소설의 마지막엔 언제나 푸아로가 사건의 관계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범인을 밝히는 '추리쇼' 장면이 나온다. 지금은 여러 다른 소설과 영화, 연극은 물론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쓰이는 이 방식을 대중화시킨 인물이 애거사 크리스티다.



Agatha Christie



푸아로와 더불어 크리스티의 소설엔 또 다른 특이한 탐정이 나오는데 다름 아닌 할머니 탐정인 ‘제인 미스 마플’이다. 평생을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거의 떠나본 적 없는 그녀의 취미는 동네에 떠도는 소문 엿듣기와 뜨개질이다. 명량한 성격에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을 겸비한 할머니 탐정은 사람들을 만나 신나게 수다를 즐긴 다음 가만히 앉아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미스 마플은 1932년에 펴낸 단편 모음집 <열세 가지 수수께끼>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장편 12편과 20편의 단편에서 활약하며 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독특한 탐정 캐릭터로 이름을 알렸다.

경험이 녹아든 생생한 추리소설 기법

탐정의 활약과 함께 눈여겨볼 작품 속 흥미로운 주제 두 가지는 ‘악리학’과 ‘고고학’이다. 소설 속 살인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수법이 독극물에 의한 범죄인데, 두 차례 세계대전 때 병원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크리스티는 이때 얻은 약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작품 중에 <메소포타미아의 살인>, <죽음과의 약속>처럼 고고학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크리스티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1930년 13세 연하의 고고학자 ‘맥스 맬로윈’과 재혼했다. 둘은 해마다 몇 달씩 함께 고고학 연구 여행을 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은 각종 정보도 소설의 설정을 실감 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됐다.

전설이 된 추리소설의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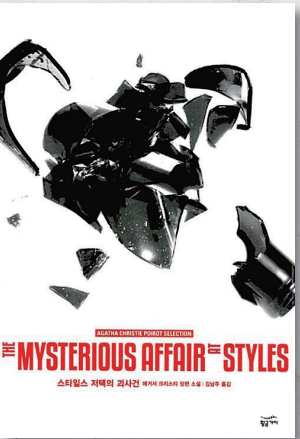
1926년 크리스티가 실종됐을 때, 첫 번째 남편 아치볼드와는 한창 이혼 얘기가 오가던 중이라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행방불명된 지 11일이 지난 12월 14일, 집에서 300km 떨어진 한 호텔에서

1. 터키 이스탄불의 페라 팔리스 호텔에 있는 애거사 크리스티 룸.
2. 1926년, 실종된 애거사 크리스티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실은 <데일리 헤럴드> 신문.
3. 런던 중심부에 있는 애거사 크리스티 기념비.
4. 영국 홀랜드 공원에 있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파란 명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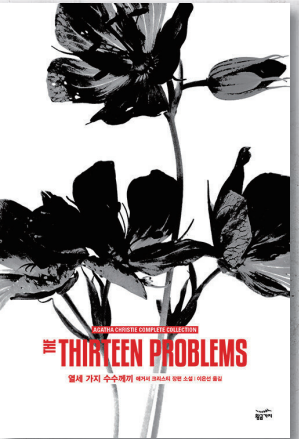


시민의 제보로 발견됐다. 기묘하게도 당시 크리스티는 자신의 실종과 관련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일종의 기억상실 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1926년 4월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계속된 남편의 불륜도 크리스티를 괴롭혔다. 더구나 그 해 출판한 신작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의 결말을 놓고 작가가 독자를 기만했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정신 상태는 더욱 지쳐갔다. 크리스티는 1976년 여든다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았다.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면 언제나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고 자서전에서도 이 일을 쓰지 않았으니, 추리작가의 행방불명 해프닝은 말 그대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 이후 애거사 크리스티는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명작을 쏟아냈다. 100편에 달하는 크리스티의 작품은 현재까지 20억 부 이상 판매되어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소설 <쥐뿔>을 원작으로 한 연극은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2만7000회 이상의 단일 극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역시 기네스북에 실렸다(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에 극장이 폐쇄됐다가 2021년 5월 재개장했다). 1971년에는 문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영국 여왕으로부터 남성의 ‘기사(Knight)’에 해당하는 ‘데임(Dame)’ 작위를 받았다. ❷

| 윤성근 |
개인 서점을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책방 기담 수집가>, <작은 책방 꾸리는 법>, <서점의 말들> 등이 있다.



명탐정 ‘푸아로’가 처음 등장한 1961년 작품 <스타일즈 저택의 괴사건>.



할머니 탐정인 ‘제인 미스 마플’ 캐릭터가 처음 등장한 1932년 단편집 <열세 가지 수수께끼>.

독립서점 산책

부산 독립서점
‘나락서점’책을 공유하는
가치와 기쁨

글 장성욱 사진 안호성, 박미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 ‘나락서점’ 박미은 대표는 책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책을 건네며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박 대표. 그는 이미 오래전 체득해서 잘 알고 있다. 책을 공유하는 가치와 기쁨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나락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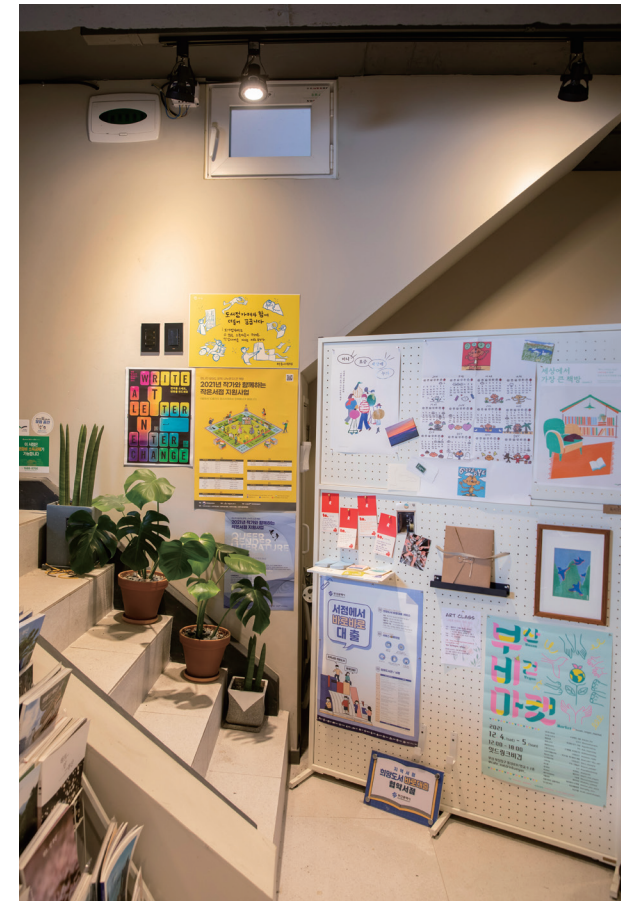
나락서점 내부



위로 : 서점의 정체성

서점의 이름에는 책방지기의 정체성이 깃들기 마련이다. 2019년 부산 문현동에 문을 연 ‘나락서점’. 책방지기 3년 차 박미은 대표가 나락으로 떨어지던 순간, 그를 구원해준 건 다름 아닌 책이었다. 책은 힘든 직장 생활과 매서운 사회생활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중심을 바로잡았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에 서점을 차리면서 갖게 된 가장 큰 목표이자 서점의 정체성, 그것은 본인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책을 건네며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다수의 길은 쉽다네. 우리의 길은 어려워. 하지만 우린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지하 1층에 위치한 나락서점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박 대표의 의지를 대변해주듯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글귀가 한눈에 들어온다. ‘나락서점’은 ‘나락’이란 단어가 주는 다소 부정적인 어감과는 달리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곳이다. 서점 내부는 아담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소박하고 안온한 맛이 있다. 그래서인지 지하에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다락 공간



도서 및 서점 소식을 전하는 알림판.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은 중앙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일반 단행본이, 오른편에는 독립 출판물이 진열되어 있다. 북 큐레이션은 박 대표가 그때그때 관심이 생기는 분야의 책들로 이뤄지는데 책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환경, 쿼어, 장애인,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가 마치 속이 알찬 과실처럼 실속 있게 채워져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주제는 단연 ‘환경’이다. 평소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 대표는 환경 관련 서적뿐 아니라 자체 제작한 ‘나락서점 친환경 독서키트’와 친환경 마스크, 업사이클링 주방 비누 등을 판매하며 환경운동 참여를 독려한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 시작은 제 반려동물 토끼 ‘리리’와 함께했던 삶 이후부터였어요.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동물권에 먼저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비건을 지향하게 되면서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환경 글쓰기 모임이나 비건 쿡킹 클래스, 친환경 제품 판매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 서점의 기쁨

나락서점은 독립 출판물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독립 출판사 '나락'도 운영하며 독립 출판물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박 대표는 독립 출판물과 작가들에게 애정이 깊다. 입고 이메일도 허투루 읽지 않고 원고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입고 안내 또한 친절하게 응대한다.

독립 출판물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나락서점의 또 하나 큰 특징은 어마어마한 활동량이다. 서점 오픈 전부터 다양한 모임과 이벤트를 열고 싶었던 박 대표는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자체 기획을 통해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 독서 모임과 북토크, 글쓰기 모임, 강연 등을 진행했다. 그중 서점의 이름을 딴 '나락의 습관'은 나락서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독자들의 참여율도 꽤 높다.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나락의 습관'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비건 관련 책 읽기, 비건 레시피 공유, 쿠킹 클래스 등으로 구성된 '한 끼만 비건'과 슬로 패션 관련 책 읽기, 옷장 정리, 업사이클링 재봉 클래스 등으로 구성된 '슬로 패션'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직한 지구인의 습관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2020년부터는 문구점 '응' 프랭코 대표와 함께 '조금 적어도 좋아'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환경 글 모임의 호스트를 맡아 '라이프 온 어스'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 글쓰기 모임은 박 대표가 매주 주제를 전달하면 참가자들이 글을 쓰고, 쓴 글들은 구글 문서를 통해 서로 피드백을 공유한다. 미션이 끝나면 각자가 쓴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성취감을 맛보고, 수익금은 환경이나 동물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꼭 기부하며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출판사도 겸한 나락서점은 독립 출판물

자체 제작이 가능해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박 대표의 저서 <정산하는 마음>뿐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쓴 소설집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와 이생굴 작가의 소설집 <ㅅㅅ(시웃시웃)>을 출간했다. 박 대표는 작년 '작가의 탄생'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각자의 이름으로 에세이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시간을 잊지 못한다며 달뜬 얼굴로 지난 추억을 들려줬다.

“‘작가의 탄생’은 부산문화재단에서 ‘2021 청년 UNIVERSITY 기획인력 양성형-BOOK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열 명의 작가가 스스로 열 권의 첫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 강의를 하고 멘토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책이 나온 후에는 작게나마 미니 북 페어를 열 만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단 한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5개월간의 여정을 잘 따라와 줘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어요.”



환경 글쓰기 모임 '라이프 온 어스' 포스터.



나락서점은 '작가의 탄생'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추어 작가의 에세이 열 권을 제작했다.



(위) 나락서점 책방지기의 책들.
(아래) 나락서점 외관.



나락서점은 출판사 '나락'도 겸하여 자체적으로 책을 출간하고 있다.



나락서점 내부 전경.



나락서점 박미은 대표.

성실 : 서점의 미래

도서관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인 나락서점은 부산 남구도서관의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협약서점'으로 선정됐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란 시민들이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하고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대출한 후에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나락서점은 서점 홍보 및 매출에도 도움이 돼 좋은 기회로 삼아 열심히 사업을 이행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 남구 작은도서관 사서들에게 지금까지의 북토크 및 북 큐레이션 노하우를 강의하는 등 도서관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을 맞은 박 대표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하다. '라이프 온 어스' 글쓰기 모임 및 독서 모임과 북토크는 기본, 부산 영주동 글마루 작은도서관의 북 큐레이션 강의와 취미로 수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영 에세이 출간도 계획 중이다. 나락서점을 아껴주는 분들과 서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성실'하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박 대표.

“한 서점 대표가 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점을 찾는 분들은 월세를 함께 나누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항상 빛지는 기분이 들어 부채감을 갖게 된다고. 나락서점을 아끼는 분들에게 빛을 갚으려면 방법은 하나죠. 오랫동안 나락서점을 운영하면서 좋은 책을 꾸준히 권해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 갚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 다른 오락거리는 제쳐두고 나락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줄 다락 같은 나락서점에서 당신의 고락에 공감해줄 박미은 대표가 따뜻한 책 한 권을 건네줄 테니. 📖

나락서점



영업시간

(평일) 오후 3시~오후 9시
(주말) 오후 1시~오후 9시

주소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110번길 8(문현동) 지하 1층

문의

0507-1321-8406

@ www.instagram.com/narakbookshop

올리비아 랭 <이상한 날씨> 우리가 만들고 우리를 만든 ‘이상한 날씨’에 대하여

글 김정연 사진 출판사

“어둡고 폭풍우 치는 밤이었다(It was a dark and stormy night).” 자신의 개집 지붕 위에 앉아 타자기를 두드리는 스누피의 소설은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물론 그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다. 이어질 소설의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는 일종의 예고이자 복선이다.



올리비아 랭.

Funny Weather: Art in an Emergency

날씨

날씨에 민감했던 프랑스 작가 롤랑 바르트는 “날씨는 삶과 기억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말한다. 날씨는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이자 우리를 소통하게 해주고 접촉하게 해주는 일종의 공백 상태 혹은 무의미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감정과 뉘앙스가 담길 수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날씨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한 술 더 떠서 우리가 바로 날씨라고 말한다. 이때의 날씨는 좀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이다. “점점 강해지는 대형 태풍, 더 심각해지는 해수면 상승, 가뭄과 물 부족, 점점 넓어져가는 오염 해역, 대규모 해충 발생, 죽어가는 숲, 매일같이 사라지는 수백 종의 생

물...” 우리의 삶과 존재는 그것들과 전혀 별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는 우리들 개개인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

올리비아 랭이 말하는 ‘이상한 날씨’는 이 셋을 모두 합친 것에 가깝다. 우리가 속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일종의 암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같은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숙고, 동시에 그것들에 가장 앞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술에 대한 고찰. 한 마디로, 지나치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지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책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꿈쩍없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Weather.



예술

이런, 내가 방금 ‘공감’이라고 했나? 오해하면 안 된다. 랭은 예술이 무슨 특효약이나 되는 양 인간의 분별력과 도덕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반대한다. “공감은 디킨스의 책을 읽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고를 들여야 한다. 예술이 하는 일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공간과 같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좋거나 나쁜, 기쁘거나 슬픈, 놀랍거나 편안한 ‘기분’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과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한다. 타임라인에서 쏟아지는 뉴스들, 사건·사고들, 자극적인 밈과 감정의 분출들은 종종(실은 자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움찔달짝 못하게 만든다. 예술은 바로 그럴 때 소용이 된다. 랭에 따르면 “그림 속의 멈춰진 시간, 소설 속의 늘어진 몇 분이나 압축된 몇 년의 시간에서는 현실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패턴이나 결과를 찾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오해하면 안 된다. 랭은 예술이 아름답거나 희망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통념에도 반대한다. 그보다는 예술이 저항과 회복에 관련을 맺는 방식에 주목한다. 그건 우리와 예술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예술이 내재하고 있다고 흔히 생각하는) ‘감동’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관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고 현실에 적용하며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영국의 연극 연출가 ‘리처드 포터’의 연극 <비행기>를 다룬 짧은 글에서 랭이 말하는 것처럼, 재앙은 이미 벌어졌고 나쁜 놀라움은 결국 찾아오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상실과 분노와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명백히 파괴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냐는 것이다.” 그렇다, 중요한 건 이거다. 어떻게.

Art.

ㅣ 금정연 ㅣ

서평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서서비행>, <난폭한 독서>, <실패를 모르는 멋진 문장들>, <아무튼, 택시>, <담배와 영화>를 썼다.

랭

올리비아 랭은 영국의 비평가이자 에세이스트로 <외로운 도시>, <작가의 술>, <강으로> 같은 작품들이 번역되어 국내의 독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전작들에서 에드워드 호퍼와 앤디 워홀을 비롯한 뉴욕의 예술가들,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레이먼드 카버와 같은 알코올 중독 소설가들, 그리고 랭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버지니아 울프를 다뤘던 것처럼 ‘위기 속의 예술’이라는 주제를 다룬 에세이들을 모은 <이상한 날씨>에도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등장한다. 장미셸 바스키아, 데이비드 호크니, 로버트 라우션버그, 진 리스, 조지아 오키프, 데릭 저먼, 힐러리 맨틀, 앨리 스미스, 크리스 크라우스, 데버라 리비, 존 버거 그리고 데이비드 보워와 프레디 머큐리 등. 랭은 예술은 이래야 한다, 혹은 저래야 한다고 단언하는 대신 다양한 예술가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편을 택한다. 그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어떻게 살고 싸워왔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그렇기에 <이상한 날씨>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올리비아 랭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0대 후반, 영문학 학위

를 내팽개치고 무분별한 도로 건설 반대 시위 현장을 떠돌던 랭은 스무 살이 되던 해 여름, 산림이 우회 도로 건설에 깔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민들이 모인 시위대 캠프에 참가한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목들이 전기톱에 쓰러지고 굴삭기에 파헤쳐졌다. 단지 이동 시간을 겨우 몇 분 아껴준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공간이 하나 둘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랭은 지구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사는 법을 찾아 시골로 들어간다. 혼자 오두막을 짓고 전기도 수도도 없이, 본인의 표현을 따르면 “사람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로웠지만, 잘 때는 베개 아래 도끼를 넣고 잤다. 극도로 노출된 듯한 기분에 늘 두려움에 시달렸고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결국 반년이 되기 전에 그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왔지만,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랭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삶은 가능하다.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다. 물론 당신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술이 있다, 라고.

삶

그러니까 문제는 공감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이상한 날씨’가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정도로 크고 위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이상한 날씨’를 만든 것 또한 우리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상한 날씨’에 단순히 고통 받기를 그치고 모두에게 좀 더 나은 날씨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

1977년 7월 어느 날의 일기에 바르트는 이렇게 썼다. “다시 며칠 동안 흐린 끝에 화창한 아침. 공기의 반짝임과 섬세함. 신선하고 빛나는 비단. 그 텅 빈(아무런 의미도 없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확신이 들었다. 사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약하고 이상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인지 모른다. 그때 비로소 화창한 날씨는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❶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멘보샤

글 장성욱

에세이 <박완서의 부엌 :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 호원숙 지음, 세미콜론

우리는 여전히 박완서라는 이름이 그림다. 2021년 타계 10주년을 기념해 박완서 작가의 딸, 호원숙 작가가 그리운 엄마의 10주기에 부쳐 에세이 <박완서의 부엌 :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을 펴냈다. 하지만 이 책은 '작가' 박완서가 아닌, 남편과 자식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던 '엄마' 박완서에 집중한다.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리운 장면은 거의 다 부엌 언저리에서, 밥상 주변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호원숙 작가는 지난날을 회상한다. 책상 앞에 정갈하게 앉아 원고지를 붙들고 있는 작가 박완서는 익숙하지만 부엌에서 다섯 아이의 도시락을 싸는 엄마 박완서는 왠지 낯설다. "한복 치마저고리 차림에 광목으로 된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현대문학>이나 <사상계>를 보면서 누워 있던" 박완서의 모습은 얼마나 근사했을까. 자주 들쳐보던 요리책 <조선요리제법> 옆에 나란히 꽂혀 있던 문학전집의 광경도 몰래 엿보고 싶어진다. 호원숙 작가는 1960년대 저녁 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추억한다. 7시 30분에 패종시계가 땡 울리면 칼칼이 퇴근하던 아버지와 7시 무렵부터 부엌에서 아버지 저녁 술상을 위해 요리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중 "새우살을 다져 쫄면해진 것을 식빵에 넣어 튀긴 요리는 참으로 황제의 음식처럼 보였"던 특별한 요리를 그리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최근 유명 셰프 덕에 전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음식 '멘보샤'이다. 하지만 작가는 엄마의 글 어디에서도 멘

보샤를 만들었다는 언급을 찾지 못했다. 60년이 지나도 멘보샤의 맛과 냄새가 선명히 기억나는 건 단순 착각이었을까? 작가는 고급 중국음식점에 가도 멘보샤를 주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유명 셰프 레시피가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굳이 요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억 속에 이미 멘보샤의 감미로운 풍미와 감촉이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기억이 틀렸더라도, 엄마 박완서가 멘보샤 요리를 한 적이 없더라도 더는 상관없다. 딸의 마음속엔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멘보샤'의 맛이 존재하니까. 이는 에세이 제목처럼 엄마 박완서를 향한 딸 호원숙의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일 것이다. ❶

recipe

겉 바 속 촉 레 시 피



멘
보
샤

튀기는 온도만 잘 신경 써도
유명 셰프가 요리한 듯한 풍부한 식감의 멘보샤를
가족들과 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

재료



❶ 식빵 5장

❸ 청주 1큰술

❹ 달걀흰자 2큰술



❷ 새우살 200g

❺ 전분 가루 1큰술

❻ 치킨스톡 1/2큰술

❼ 녹인 버터 2큰술

❽ 튀김용 기름



다진 마늘 1큰술
케첩 2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큰술
치킨스톡 1/2큰술

- 01 식빵 가장자리를 잘라낸 후 4등분한다.
- 02 새우살에 청주 1큰술을 넣고 10분가량 재운다.
- 03 새우를 칼 옆면을 이용해 식감이 유지될 정도로 다진다.
- 04 다진 새우를 볼에 담아 달걀흰자 2큰술, 전분 가루 1큰술, 녹인 버터 2큰술, 치킨스톡 1/2큰술을 넣고 섞는다.
- 05 01의 반죽을 적당히 덜어 식빵 위에 올리고 다른 한쪽 식빵으로 덮는다.

- 06 냄비에 기름을 넣고 60℃로 예열한 후, 재료를 넣고 양쪽으로 뒤집어가며 튀긴다.
- 07 노릇노릇 튀겨졌다면 냄비에서 꺼내어 기름을 제거하면 멘보샤 완성!

Good!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식감이 풍부한 멘보샤를 만들 수 있어요!

김영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속
첵 베이커 'My Funny Valent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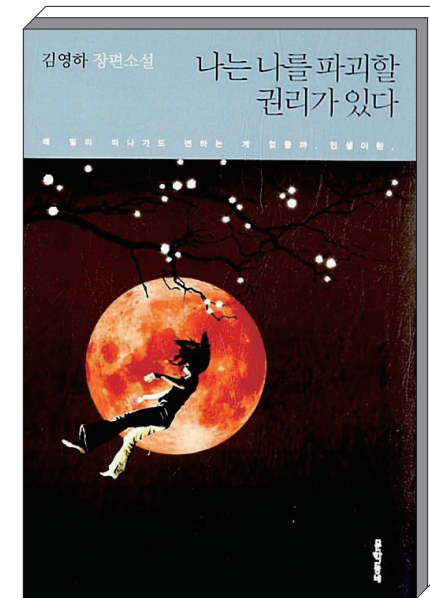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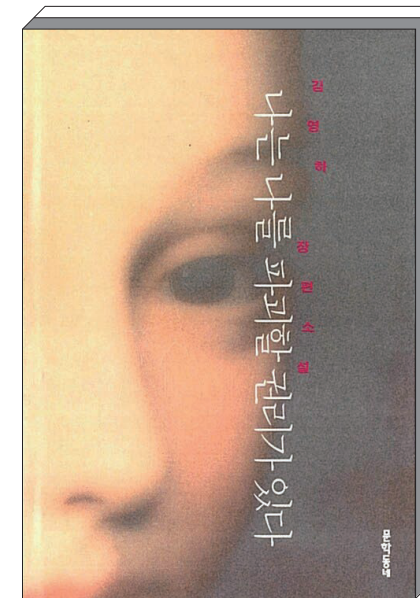
죽음을 욕망하는 여자들, 작별 앞에서 선택한 레퀴엠



'My Funny Valentine'을 부른 첵 베이커의 초상화

자살 안내자인 '나'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유디트>를 닮은 여자들을 찾아 죽음으로 인도한다. 강요는 없다. 그녀들의 죽음이란 숨은 욕망을 일깨워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김영하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기벽이 있는 세연과 행위예술가 유미미가 나르시시스트적인 남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욕망의 해방을 위해 죽음에 이르는 소설이다.

글 조혜림 사진 출판사, 배급사, 위키피디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누군가를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어릴 적 관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편안함을 그리워하며 북극으로 떠나 한없이 지루해지고 싶었던 여자는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찾고 싶어 한다. 끝없이 달려가지만 했던 예술가는 마침내 자신을 되돌아볼 순간을 맞이하고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한다. 그들은 자살 안내자인 '나'를 만나 돈을 지불하고 자살 방법을 소개받는다.

매혹적이지만 죽음의 위험을 품은 클림트의 <유디트>를 닮은 세연은 “누군가를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라고 말한다. 이 대사는 소설 속 유디트들로 수합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택할 것을 의미한다. 나는 자살 안내자일 뿐 그녀들을 죽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저 들라크루아의 작품 <사르다나팔의 죽음> 속 사르다나팔루스 왕처럼 자신의 곁에 있는 여자들이 피를 뿜는 죽음을 초연히 지켜볼 뿐이다.

죽음을 욕망하는 여자들은 죽기 전에 노래를 듣는다. 레퀴엠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들은 죽음을 맞이할 결정을 한다. 그녀들의 곁에 흐르는 음악들은 그녀들의 삶을, 욕망을 정확하게 대변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유려한 명곡들로 선택돼 있다. 의뢰인 세연은 자살 안내자의 손을 붙잡고 첵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을 듣는다.

삶으로서의 해방이자 최고의 작품은 죽음,
첵 베이커 'My Funny Valentine'

“이 사람 알아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땅속에서 내 몸을 잡아끄는 것 같네요. 깊이깊이 꺼져버릴 것 같아요.”

“첵 베이커라는 재즈 뮤지션이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지요. 이름을 날린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재즈사에 남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펫 연주가 탁월했던 사람도 못 됐죠. 60년대에는 오로지 마약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연주를 했대지요.”

-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중에서

'My Funny Valentine'은 얼핏 유쾌할 것 같은 제목을 가졌지만, 무척이나 처연하고 나직한 곡이다. 쿨재즈의 귀공자라 불리는 웨스트코스트 출신 재즈 뮤지션 첵 베이커. 그는 제임스 딘 같은 아름다운 외모와 출중한 트럼펫 실력, 심플하고 가녀린 목소리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가수다. 하지만 소설 속 나는 첵 베이커를 설명하며 그의 화려한 전성기를 생략한다. 그저 피로와 권태, 마약에 찌든 말년의 얼굴과 염세적이고 거칠게 질어진 목소리를 서술한다. 말년의 첵 베이커의 얼굴은 세상을 초탈한, 죽음이란 휴식을 찾는 얼굴로 소설 속에 묘사된다.



시인 겸 소설가이자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1934~201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영화 포스터.

My funny valentine. Sweet comic valentine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 photograph able.

Yet you're my favorite work of art.

Stay little valentine stay

나의 유쾌한 발렌타인, 달콤하고 즐거운 발렌타인.

넌 날 진심으로 미소 짓게 만들어.

너는 날 웃게 만들어. 사진으로 담아낼 수는 없지.

여전히 당신은 내 최고의 예술품인걸. 이대로 있어줘,

이대로 나의 작은 발렌타인.

- 'My Funny Valentine' 가사 중에서

소설은 쳇 베이커가 암스테르담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콘서트에서 부른 'My Funny Valentine'의 진한 곡조를 흘러 주며 삶으로서의 해방이자 최고의 작품은 죽음이란 것을 암시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는 환희에 차 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예술품인 죽음을 희망한다. 사랑 노래로 알려진 이 곡은 소설에서 쳇 베이커의 죽음을 암시하는 유서이자 세연이 꿈꾸는 영원한 휴식속으로 깊이깊이 끌어내리는 레퀴엠이다. 악마의 삶을 산 천사의 목소리로 비유되는 쳇 베이커의 목소리. 세연은 그의 목소리에 의해 달콤한 발렌타인, 즉 죽음으로 인도 당한다.

비윤리적 진실들과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한 레너드 코헨

레너드 코헨의 거친 음색과 육중한 베이스 음이 그녀의 춤과 잘 어울렸다. 욕실 쪽에서는 한껏 틀어놓은 물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물은 계속 흘러넘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열 번쪼 'Everybody Knows'를 듣고 욕조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욕실 앞에 서서 그녀가 욕조 속으로 천천히 자기 욕체를 담그는 것을, 그리하여 그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칼을 집어 들면서 그녀는 내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안녕. 고마웠어요. 당신의 꽃들이 영원하길 바라요.”

“당신도 잘 가요.”

-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중에서

행위예술가이자 의뢰인 유미미는 자살 안내자를 만나 동맥을 끊기 전 레너드 코헨의 'Everybody Knows'를 틀어놓고 오랫동안 춤을 추었다. 레너드 코헨. 그는 맹수가 나무를 손톱으로 깊이 긁어낸 듯한 낮고 묵직한 목소리를 음률 속에 굽어낸다. 세상에 이렇게 독특한 저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관조적 태도와 삶과 사회를 묵도하는 가사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가수다. 그의 가사는 저음의 목소리에 실려 설득력을 갖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다. 레너드 코헨의 대표곡 'Everybody



트럼펫 연주자이자 가수 쳇 베이커(1929~1988).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명언을 남긴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



Knows'는 세상에 돌아가는 비윤리적 진실들과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신처럼 읊조린다. 우리는 모두가 아는 진실이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살고 싶어 한다. 그것은 현실에서 달아나려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기 눈을 가리고 자신의 기준 속에 살고 싶은 욕망을 반영하기도 한다. 맹금류처럼 날카로운 춤을 추며 여왕처럼 관객을 내려보던 유미미는 열정과 광기가 피어오르는 자신의 행위를 직접 마주 보지 못하는 행위예술가다. 그녀는 왜 자신을 바라보길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끊임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영원한 휴식을 맞이하고 싶은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살 안내자를 만난 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휴식을 받아들이 준비를 하고 죽음으로 가는 행위를 시작한다. 오래전 귀족들이 그러했듯 유미미는 욕조에 들어가 물속에서 우아하게 동맥을 긋는다.

유미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해온 진실을 터트리며 멋지게 떠났고, 유디트는 유쾌한 발렌타인의 품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매혹적인 미학적 죽음은 금기시되어온 죽음의 욕망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 하나의 욕망이자 동경으로 공표한다. 소설 속에서 죽음이란 주인공들이 경험하는 나르시시즘, 섹스와 함께 본능적인 욕망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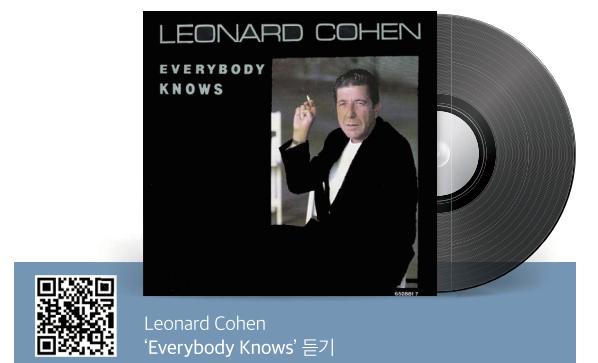
| 조혜림 |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집필한 저서에는 <페이지스 7집 : 다시보기>가 있다.

죽음은 황홀한 욕망인가,

죽음은 삶의 일부인가

소설은 저돌적으로 죽음의 미학을 향해 질주한다. 우리는 그 황홀한 욕망을 거부할 수 있을까? 세상이 회피해온 죽음이란 것은 결국 삶의 일부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낼 때 우리는 이 책을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인사로 그녀들의 죽음은 마무리되지만, 소설은 끝자락에 도달하자 멀리 떠나도 변하는 게 없는 인생의 진부함을 토로한다. 결국 우리의 삶에 돌파구나 희망 같은 건 없는 것일까. 죽음조차도 진부한 인생의 한편일 뿐 진정한 휴식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 속에 소설은 끝이 나고 나의 마음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곤 이내 마음이 쓸쓸해지는 건 아직 생의 한가운데를 좀 더 부유하고 싶은 편린 같은 욕망이 조금 더 날카로워서일지도 모른다. ㉠

Chet Baker
'My Funny Valentine' 듣기Leonard Cohen
'Everybody Knows' 듣기

news

국립중앙도서관

01

오픈 액세스 학술 연구 자료 100만 건을 편리하게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국내 오픈 액세스 학술 연구 자료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 서비스인 ‘오픈액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OAK) 국가리포지터리(repository)(www.oak.go.kr)’를 새롭게 단장하여 3월 3일(목) 서비스를 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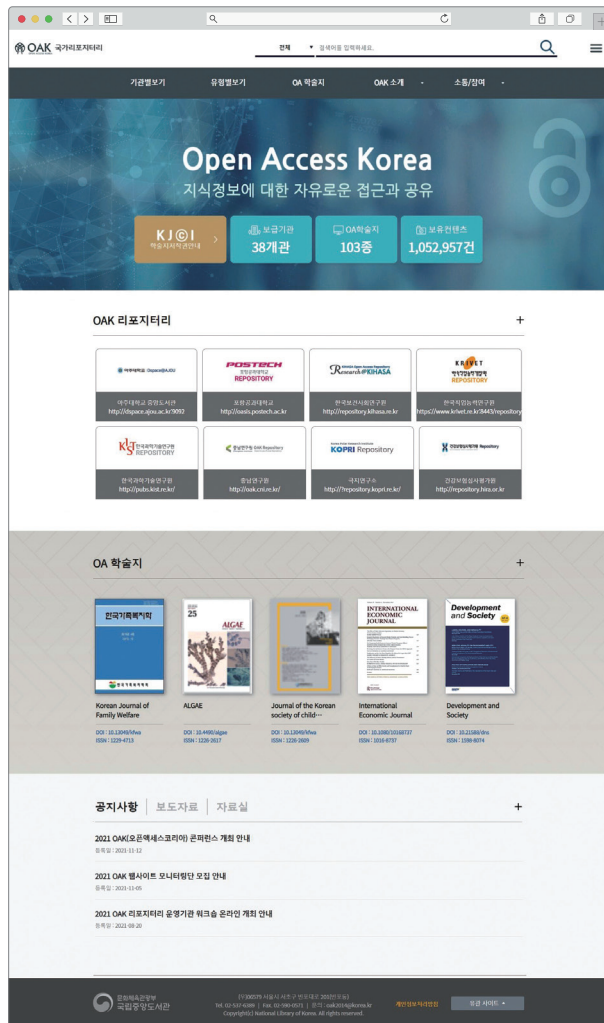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OAK 국가리포지터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OAK 리포지터리를 보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총 56개 기관에 국가리포지터리를 보급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약 100만 건의 학술 정보는 ‘OAK 국가리포지터리’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검색의 편의성, 서비스의 다양화, 사용자 위주의 UI로 새 단장**
이번에 개편된 ‘OAK 국가리포지터리’는 [기관별보기] 및 [유형별보기] 기능을 통해 전체 데이터를 브라우징 형식으로 볼 수 있게 구현하는 한편, [OA학술지] 서비스를 추가하여 JATS(Journal Article Tag Suite) XML로 구축한 오픈 액세스(OA) 학술지의 본문 및 표·그림, 참고문헌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패시(facet)을 활용한 다양한 자료 검색 기능과 사용자의 기기에 따라 화면 구성을 최적화해주는 반응형 웹기술도 적용하였다.

▲국내 오픈액세스 공유 자원의 이용 활성화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OAK 리포지터리 보급과 함께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지저작권정보서비스(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KJCI)를 제공하여 연구자의 학술논문을 적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JCI에서는 현재 2500여 종의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314



OAK 국가리포지터리(누리집) 개편 화면.

국립중앙도서관

02

국립중앙도서관-문화재청, K-콘텐츠의 보존과 공동 활용 협력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3월 4일(금) 11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가 기록문화 유산, K-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과 공동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기록문화 유산의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의견 조율, ▲워크숍·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와 관련 정보교류 등이다.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부터 문화재청에서 요청하는 고문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디지털화한 원문(이미지, 텍스트)뿐 아니라 해제와 목차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 누구나 손쉽게 대한민국 국가 기록문화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문헌 자료의 디지털화 정책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정보교류를 지속할 것이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0561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누리집 화면.

03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역사문화 여행!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 주한라트비아대사관, 주한리투아니아대사관과 공동으로 3월 14일(월)부터 4월 10일(일)까지 도서관 본관 1층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미래로 나아가는 발트의 길’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 개막식은 14일(월)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발트 3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전시 관람은 15일(화)부터 가능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발트의 길’ 등 발트 3국의 역사적 개요와 함께 ‘바툰(BATUN) - 유엔을 향한 발틱의 호소’에 대한 소개, 발트 3국의 자연환경, 건축물 등 현재 모습을 사진전 콘셉트로 구성·안내한다. 이는 세 나라의 역사적 흐름과 ‘발트의 길’ 이후 각 국가의 발전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된 발트 3국의 도서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국의 문학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다양성’이라는 소재를 그림책으로 풀어낸 발트 3국 작가들의 공동 문학 프로젝트인 ‘타이니 북스(Tiny Books)’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0582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미래로 나아가는 발트의 길’ 전시 포스터.

news

국립중앙도서관

04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은 도서관에서 독립영화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3월 24일(목) 오후 2시 디지털도서관 문화소강당에서 2022년 첫 번째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독립영화 상영회는 한국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따라 대화가 있는 영화(Guest Visit, GV)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한국 독립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영상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종료 시각은 영화 상영 시간 및 GV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상영 예정작은 상영회 2주 전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공지 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3월 24일 첫 상영작 <영화의 거리(김민근 감독, 2021년 개봉작)>는 헤어진 연인이 일로 만난 사이가 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룬 로맨스 영화이다. 최근 티빙(TVING) <술꾼도시여자들>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배우 한선화와 6년 만의 스크린 복귀를 앞둔 배우 이완의 생활감 넘치는 연기로 다가오는 봄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현실적인 로맨스 영화이다. 해당 영화 관람 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로그인 > 신청-참여 > 교육/문화 프로그램 > 영화 상영)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6302



2022년 3월 24일 상영작
<영화의 거리> 배너 이미지.

05



MR 환상동화 체험 사진.

도서관은 신나는 실감 놀이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홀로렌즈 기반의 혼합 현실 동화 콘텐츠를 개발해 새롭게 서비스한다. 고혜진 작가의 그림책을 소재로 한 <어느 여름날>의 체험자는 홀로렌즈를 쓰고 주인공 공인 북극곰 키키를 현실에서 만나 손바닥 위에 올려 함께 다이빙 놀이를 하고, 악기도 연주한다. 혼합 현실 동화 콘텐츠에서 체험자는 동화 속 주인공과 현실 공간에서 손동작으로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를 직접 진행시켜 실제 일어난 일처럼 생동감 있고 몰입감 넘치는 동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작년 어린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AR 미션'을 한층 다양화해 서비스한다. 올해는 특히 <홍길동전>, <박씨 부인전> 등 한국 고전 8종의 콘텐츠를 추가하고 난이도를 높여 청소년도 즐길 수 있게 준비하였다. 참여자들은 팀별로 태블릿을 들고 이동하며 도서관 곳곳에 숨겨진 문을 찾아 들어가 작품 속 주요 장면 중 제시되는 미션을 풀어나간다. 체험 프로그램을 마치면 'AR 캐릭터 카드'를 통해 책 정보도 얻고 앱을 통해 증강현실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감형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XR 책놀이' 앱을 개발해 제공한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1

체험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aCYSNNRo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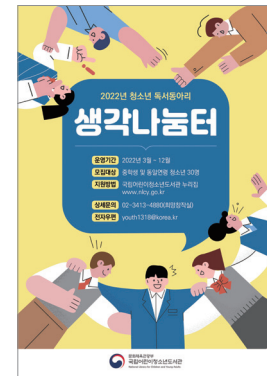


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동아리 '생각나눔터' 첫 만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박주옥)은 지난 3월 12일(토) 청소년 독서동아리 '생각나눔터'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동아리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한다. '생각나눔터'는 중학생 30명이 매월 1회 독서토론으로 생각을 나누고,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추천 서평을 작성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정명섭 작가를 초빙하여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잘 사는 삶'을 주제로, <순례 주택> (유은실 저), <격리된 아이> (정명섭 외 2인 저) 등 10권의 주제 도서를 함께 읽고 깊이 있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생각나눔터' 참여자들이 추천하는 '또래추천도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54



07

제10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자단 '부커부커' 발대식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난 3월 12일(토) 오후 2시, 제10기 청소년 기자단 '부커부커' 발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 한 해 동안 기자로 활동할 30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이들에게 위촉장과 명함을 수여하고, 도서관 견학과 미꿈소 창작 프로그램 체험의 시간도 제공했다. 2013년에 출발한 '부커부커' 기자단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며, 제10기 기자단에는 중1부터 고3까지 다양한 나이의 열정 있는 청소년들이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대안교육기관 소속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청소년 기자단은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취재하거나 관심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도서관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소년 기자단이 취재한 기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1

08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낭독 서비스 이용 가능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원종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시각장애인 낭독 서비스를 3월 2일(수)부터 비대면으로 재개한다. 비대면 낭독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별 맞춤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2009년부터 장애인 이용자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인쇄 도서 및 원문 DB 낭독, ▲도서관 정보 검색, ▲각종 자료 조사 등의 낭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복지로서 독서 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낭독 서비스를 운영하여 비대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신청 방법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사전 전화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go.kr) 또는 장애인정보누리터(☎02-3483-8887)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협력과 02-590-6294



news

국내외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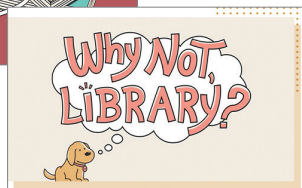
❶ '2022년 청년 책의 해', 책과 청년이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청년 책의 해 추진단(단장 안찬수, 책임이사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을 구성했다. 2월 25일(금)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열어 '2022년 청년 책의 해'의 시작을 알렸으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친화적인 책·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층의 책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독서 인구를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책 문화 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

국내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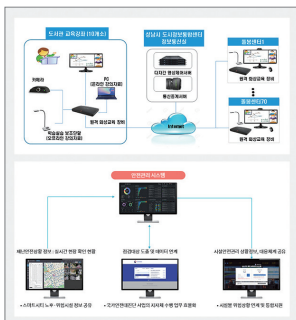
❶ '2022년 청년 책의 해'를 알리는 포스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❷ <Why Not, Library> 영상물 화면. (출처 : 서울도서관)

❸ 성남시, 도서관 원격 화상교육, 시설물 위험 징후 감지 IoT 설치

성남시는 스마트 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부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돼 도서관-돌봄센터 간 원격 화상 교육 도입 등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선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스마트화'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이 외에도 성남시는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인공지능 민원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❸ 각 시스템의 프로그램 구축 현황. (출처 : 성남시청)



❹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료집.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❷ 서울도서관, 시민이 상상하는 다음 세대의 도서관 공개

서울도서관은 2021년에 개최한 서울 지식이음축제·포럼 아이디어톤 대회 'LINK Revolution'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담은 소개 영상 콘텐츠 <Why Not, Library>를 제작했다. <Why Not, Library>는 10대 청소년팀부터 대학생 친구팀, 가족팀, 직장동료팀 등 7개 시민팀이 제안한 서비스 중 인상 깊은 4개 서비스 소개를 담았으며, 중학생 '은상'과 IT 분야 스타트업 직장인 '원이'로 대표되는 도서관 비이용자층인 2명의 캐릭터가 서비스를 경험하는 내용을 모션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시민 관점의 도서관 서비스 경험을 전달한다.

❹ 코로나19 이후 대학도서관 실태 및 자료 이용 행태 변화 확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년 10만 5250원에서 21년 10만 1851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자자료 구입비는 21년 처음으로 전체 자료 구입비의 약 7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17년 65권에서 21년 75권으로 약 15% 증가했고,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는 20년 4.0권에서 21년 2.3권으로 약 42%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www.rinfo.kr)과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❺ IFLA, 2022년 '올해의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상' 후보 접수 시작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올해의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상'은 전 세계의 새롭고 흥미로운 공공도서관을 기념하는 상이다.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과 창의적인 IT 솔루션을 가장 잘 결합하고 디지털 개발과 지역 문화를 모두 고려한 전 세계의 새로운 도서관에 수여된다. 공공도서관 신설에 관한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문위원과 협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비회원도 가능하며,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news

국내외 도서관

국외 도서관



❺ IFLA의 '올해의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상' 포스터. (출처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❻ 뉴질랜드국립기록관이 공개한 새로운 보존관의 건립 예정 모습. (출처 : 뉴질랜드국립기록관)

❻ 뉴질랜드국립기록관, 새로운 보존관 공사 착수

뉴질랜드 웰링턴(Wellington) 지역에 2026년까지 뉴질랜드국립기록관의 새로운 보존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2026년에 개관 예정인 이 건물은 6500톤의 강철을 사용하고 150만 시간의 현장 노동력이 동원되며 500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 건물의 건축면적은 약 1만9300㎡에 이르며, 뉴질랜드에서 지진에 가장 강한 건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은 안전한 적재 구역, 최첨단 서가, 전문 시청각 및 영화실, 보존 및 디지털화 시설, 세미나 및 회의실을 포함할 예정이다.

❽ 페루국립도서관, 전국 점자 인쇄본 무료 배송

페루국립도서관이 페루우편공사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통해 점자 인쇄 텍스트를 무료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시각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무료 점자 인쇄 서비스는 리마(Lima) 지역에 한정되어 리마공공도서관(Gran Biblioteca Publica de Lima)에서 직접 수령과 우편 배송 방법으로 제공했지만,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각 장애인이 집에서 점자 텍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Tiflos BNP'의 일부이다.

책다모아(도서 기증)로 하는 지식 기부

글 이혜민 그림 보리보리쌀

